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4년 4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13호

<http://www.snua.or.kr>

동창회 활성화

060-604-0011

전화 한 통화로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제6회 冠岳大賞 수상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3·4·5면)

모교 새내기 4천84명 입학 (14면)

세계경제연구원 司空亨이사장 회견
(8~9면)



만든 본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潤斗, 崔青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錫,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駿,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사일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裴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子鶴

관악추수

제6회 관악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다이너스티홀을 가득 메운 동문들은 '서울대학교가 살아야 조국이 산다'는 일념에서 모교 발전을 기원했고 신임학원의 인회를 축하했다.

이번 총회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제6회 관악대상의 시상이었다. 관악대상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 끝에 선정된 수상자는 참여상의 姜信祐전경련 회장, 협력상의 卞大圭수펙스 사장, 영광상을 모교 외대 文信容교수였다.

참여상은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크게 기여한 姜信祐전경련 회장이 수상했다. 姜信祐 수상자는 1959년에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아제약 회장으로서 활약하면서 12년간 의과대학 동창회 회장으로서,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활약하며 모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동안 동창회 장학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문화사업, 의료사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또 모범적인 기업인으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 모교를 빛낸 기업인이다.

姜수상자는 수상소감에서 이를 앞으로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한국경제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력상 수상자인 卞大圭사장은 1983년 공과대학을

졸업한 신부인과 교수로서 시험관 아기 탄생에 최초로 성공했으며 세계 최초로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해 한국의 과학수준을 세계에 과시한 공로자이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黃馬鞭교수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집단을 대표해 받게 된 것이라고 겸양하면서 앞으로의 의학발전에 정진하기를 다짐했다.

제6회 관악대상자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이들이 앞으로도 참여, 협력, 영광을 모교 동창회에 비쳐주기를 바란다. 동창회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한 동문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영광부문은 주로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아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내년에도 올해 못지 않은 대상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동창들도 후보자 추천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관악대상이 가장 명망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믿으며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哲)

관악대상의 의미

졸업한 뒤 벤처기업인 (주)휴맥스를 창립하고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개발에 성공해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며 모교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12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바 있다. 비교적 젊은 40대 벤처사장이 협력상 수상자로 선임된 데에는 청·장년층의 동정과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배려도 있었다.

영광상 수상자인 文信容교수는 1974년 의과대학을

동문칼럼

갈등과 불화, 대화합으로 전환돼야

한 사회가 잘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구성원간의 다양성과 갈등관계를 가장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질서있게 해결하고 조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을 화해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갈등구조를 화해의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합리적 질서와 기준이 확립돼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은 독단과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疑難問之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 집단만의 생각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까지 자행한다면 그 결과는 사회의 불화와 갈등에 당사자들의 이익도 소실되고 말 것이다. 참다운 민주발전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합질서야 최대한 준수되는 가운데 공생의 관계가 유지 발전되도록 하는 구성원 모두의 인내심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민족사적으로 획기적 한 단계의 대화합을 위해 거룩적인 형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25를 전후한 남북간의 원수와 같은 적대관계를 그 책임추궁을 덮어 둔 채 대화합을 이룩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상호 교류와 협력, 통일을 향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44년전 필자는 대학생으로서 적색독재와 백색독재를 다 함께 배격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바탕 위에서 4·19혁명을 주도했고, 그 후 민족통일을 향한 열정과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과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을 조직하면서 우선 「남북간의 서신교환」과 「남북한 학생회담」을 제의했다가 5·16사태 이후 「혁명재판」에서 소위 「利權行爲」을 했다는 이유로 10년 연도를 받았지만 動機의 순수성이 인정돼 수감생활 1년만에 형면제로 특별로 풀려나 있었다. 당시의 상황이 비단한 민족 대화합으로의 엄청난 변화를 위해 갖가지 노력과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재 국내에서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실정은 화해와 화합은 물론 국민의 대립과 분열로 치달고 있고 법과 정서는 극도로 문란해져 있다. 준법과 질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는 난정란을 보여 주었고 일반국민들도 부당한 시위와 폭력 및 자폭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에 불안과 불화가 증

尹 埴

(64년 文理大卒)
대구경북개발
원장



폭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과 불화는 반드시 대화합으로 과감히 전환돼야 한다.

다양하고 상반되는 이견과 갈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질서하고 화해를 도모하여 일관한 합의(consensus)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화해와 타협 및 합의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다양하거나 상반된 방향 가운데서 하나의 선택을 한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선택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과 상대성의 원칙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어떤 제도나 정책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적 결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국민의 선택이 반드시 가장 바람직하거나 최선의 가치를 지닌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경우에 따라서는 현명한 선택이 못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국민적 선택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시점에서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에 의해서 선호되는 상품이 자유스럽게 선택돼야 하듯이 정치 선택이나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유스러운 집권과 재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 각자의 자유스러운 선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선택의 종합적 결과가 국민 또는 지역민의 대표성을 온전히 지닐 수 있게 되려면 단순한 從多數의 원칙(plurality)에 의하기보다는 超過半數(super majorities)는 못마땅 하더라도 최소한 單純過半數(simple majority)의 지지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총회에 앞서 회장단 연석회의

신관 건립에 관한 중지 모아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2일 산리호텔 영빈관 토파즈룸에서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본회 許 肅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의 인사말, 金在淳 명예회장의 건배사에 이어 林 회장에게서 회장의 추재를 위임받은 孫一橫상임부회장은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정기총회는 19대 회장단 임기가 만료돼 새 임원진 구성의 중요한 안건이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자 마련했다」며 먼저 신관건립 사업에 대해 전 경위를 듣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다.

許 肅사무총장의 신관건립 추진경위 보고에 이어 辛東一부회장은 추가보고에서 현 마포 동경회관에 7천5백평 규모, 지하 6층·지상 16층으로 신관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허가당국 관계자의 협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신관건립 비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회관 건물과 특직 장학금을 겸한 자금 출연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辛부회장은 또 「신관 건립에 따르는 앞으로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쌓은 현 林 회장을 제20대 회장에 재추대해서 신관 건립을 완성하자」고 건의했다.

李聖秀교수는 「신관 건립 자체가 어렵고 많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林 회장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어 신관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金在淳 명예회장은 「모교와 협의한 결과가 교내 건물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林 회장을 추대해 동문들의 총의를 모으자 마포 동창회관을 훌륭하게 재건할하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며 참석자 전원 이에 대한 만장일치의 뜻으로 협찬 박수를 보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金在淳 명예회장, 白樂安·白文基·李聖秀교단, 林光洙회장, 孫一橫상임부회장을 비롯해 韓斗鎭·閔西陵·朴熙伯·辛東一·朴漢實·金宗鎔·李金壽·金漢載·孔大植·洪性大·李炯均·卞柱仙부회장, 朴英俊감사, 許 肅사무총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鉉·朴明輝·鄭八潁이서 등이 참석했다.

또 상임이사인 嚴壽子(간호대)·成百諱(공대)·李信子(미대)·劉錫玉(생물대)·梁顯植(치대)·金圭植(대위원)·辛鏡鈺(보대원)·金正國(AMP)·朴英實(ChCN)등본, 본보 朴世熙·林炯和·南仲九·金鍾鎔은심위원, 관악연문인회 安東勳회장, 상대동창회 崔海龍사무국장·沈載益등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李)

제20대 회장에 林光洙회장 재선임

姜信浩·卞大圭·文信容등문 「冠岳大賞」 수상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9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각계 동문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신입회원 환영회 겸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회 許 龍서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전 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동창회관 신관 건립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신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 모교 내에 예전했던 부지에 변경이 생겨 동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 그리고 성원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모교 鄭憲燾총장은 학사에서 "모교는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에서 공동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육 기우고자 조직의 슬림화, 교수 구성의 다양화, 평민화와의 화합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세계 'Top 10 대학'을 위해 한 발 먼저 달고, 한 뼘 더 넓히고, 한 치 더 깊게 진입하도록 동반자적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부분에 동아제약 姜信浩(52년 韓大卒·변호·교문)회장, 협력부분(주)휴맥스 卞大圭(83년 工大卒)사장, 영광부분에 모교의 대文信容(74년 韓大卒)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공적 및 수상소감 5면 참조)

본회는 이번 상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넘겼거나 모교 및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동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까지 동창회보와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모교와 각 해외·지방지부에 추천 요청을 한 결과 참여부문 6명, 협력부문 3명, 영광부문 13명 총 22명의 후보가 추천을 접수했으며, 관악대상 운영위원회에서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된 바 있다.

金在淳 명예회장의 건배 제의에 이어 만찬 중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본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2003년도 결산과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프리젠테이션했으며, 후배-부회장이 그동안의 동창회관 신관건립 경과를 보고했다.

孫一振 상임부회장의 회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안건 심의에서 동창회 회칙 제8조(임원의 선임)와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따라 제20대 회장에 林光洙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으며, 朴英俊·朱成民감사를 재선임했다. 또 부회장단 구성은 林희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林光洙회장은 수락 인사말에서 "동창회 신관 건축과 관련해 모교 내에 마련하는 것을 접어두고 한 마포외관 자리에 7천5백평 규모의 지상 16층, 지하 6층의 격조 높은 회관을 짓는다면 동문들의 원원에 충분히 부응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밖에 특기장학금을 신관건축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의 지원 폭을 넓히는 동시에 모교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이공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락 인사말 요지 참조)

이어 만찬 중 보고된 2003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2003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朴英俊감사의 감사보고서 보고가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2003년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한편 올해 모교를 졸업하고 새로 입회한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교 鄭憲燾前처장이 환영사를 통해 "이제까지 여러분은 스승과 학우를 비롯한 전속한 사람들과 생활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며 "세태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악대상 시상



기념앨범 수여



축하선물 전달



꽃다발 증정

자신보다 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의를 표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인과학대학 생명과학부부 졸업하고 현재 모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崔鍾旭동문은 "이 사회의 기동이자 건인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서약대 출신이라는 이름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실력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서울대인이 되

회장 수락 인사말 (요지)



존경하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漢學非才한 저에게 다시 동창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문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 순간 열과 성을 다해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금년은 전체 동문의 수가 학위 기준으로 30만을 헤아리게 되는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며 또한 동창신관 신관 건축에 대해서도 동문들의 중지가 모아지고 청사진이 마련되는 뜻 깊은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관 건축에 관해서는 모교 내에 동창회관을 신축하려면 꿈을 접고 넓은 들지마는 한 마포외관 자리에 7천5백평 규모로 지상 16층, 지하 6층의 격조 높은 동창회관을 짓는다면 우리 동문들의 원원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밖에 특기장학금은 신관건축과 연계, 획기적인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바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의 지원 폭을 넓히며, 모교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10만부를 발간하고 있는 동창회보를 관악대문헌의 지원을 받아 편집, 디자인, 내용 등을 개선하여 "가다려지고 읽혀지는 회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상호간, 모교와 동창회간의 가교와 대화의 창으로 회보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동문들과 여성 동문들이 동창회 활동에 흔쾌히 참여하여 서울대인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도록 만류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아래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동문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크게 기여해온 서울대인 가족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세월을 되돌아볼 때, 모교는 저의 학문과 인격의 토양이었고 스승이었고 어머니였으며 원대한 꿈을 심어준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제 뒤편에는 'VERITAS LUX MEA' - 진리는 나의 빛,이란 정령석상이 태신처럼 우뚝 서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세계 'Top 10 大學'으로 뽐내야 하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합쳐 모읍시다. 그리고 서울대가 바로 살아 나리라 신념은 확고한 신념으로 조국과 민족 앞을 책임을 다하는 서울대인이 됩시다.

다,고 답사했다.

冠岳大賞 수상자들은 축하하기 위해 모교 상학과 金鍾憲(84년 音大卒)교수가 「목련화」 「그라운 금강산」 등을 축하로 불렀으며, 모교 재학생들도 구성된 국악과 연주단이 「대금독주 청성곡」 「기약할수 시나위」 등 흥겨운 우리 가락을 선보였다.

시종일관 모교 스폰서이다 단원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김종현 총회에서 두리마전(사장 李琳姬·43기 AMP·13기 AIP)의 기술진이 행사 중계와 영상상을 촬영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가죽 지갑)과 朴英子(50년 韓大卒)동문이 엄정한 참살비누·입상살부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白文基·李秉秀교문,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振 상임부회장, 韓斗範·李龍浩·尹勳燾·徐廷和·李海濤·朴熙伯·趙南順·辛東一·鄭容範·朴廣吉·金宗烈·李金器·金潤淑·孔大植·孫京奎·李相禹·

洪性大·李炯均·金學俊부회장, 朴英俊·朱成民감사, 許 龍서무총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鉉·朴明錫·鄭八道·金美華이사, 金一慶감사 등이 참석했다.

또 상임이사인 俞澈子(간호대)·成百齡(공대)·李儒子(미대)·李祐宰(수의대)·梁源錫(치대)·申順軒(보내대)·朴英載(CHCN)·金万植(HPM)·梁在鉉(ROTC)동문, 崔泰賢 前사대총창회장, 趙善淵 前대내일동창회장, 朴주·전남지부 宋彥鍾회장, 수원지부 俞東濤회장, 본보 金哲洙·朴世熙·南仲九·李慶衡(仁主는살위위), 모교 鄭憲燾·趙仁主·鮮子仲燾·朴基俊전임회장, 鄭憲燾총장, 白忠鉉대인장, 사외대 金仁俊학장, 생원대 黃仁京학장, 간호대 徐文子학장, 사대 尹正一학장, 수외대 李文漢학장, 의대 李宗郁학장, 李敬一·李長茂·黃禹錫교수, 부평문화재단 李道卿이사장, 가천의대 金炳仁 尹正哲원장, 金明子 前한컴부 장관 등이 함께 자라했다. (表)

「식품·외식산업과정」준회원 영입

이사회 결정 ... 자동차보험 사업도 논의



본회는 지난 3월 19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 C홀에서 동창회 제144차·관악회 제8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상임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동창회 200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재단법인 관악회 2003년 결산을 심의,

의결했으며 동창회 2003년 결산을 심의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했다.

동창회 회칙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20대 회장과 감사 추대에 대해 徐廷和부회장은 「지난 2년간 동창회관 신관 건립을 위해 열정을 쏟아온 林光洙회장이 계속해서 동문들의 염원인 격조 높은 회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20대 회장에 추대하자」고 말했으며, 만장일치로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동창회 회칙 제5조 제2호(준회원은 전신을 포함할 각 대학(원) 중퇴자 및 단기 연구교육과정 수료자로 한다)에 의거,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최고경영자과정 (AMFR) 수료자의 영입을 승인했다.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14기 수료생을 배출한 식품·외식산업과정은 매 회기마다 3천만원의 기금을 모금, 총 4억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보건대학원에 출연한 바 있다.

辛東一부회장의 신관건립 경과 보고에 이어 許 龍사무총장은 사업보고에서 「올해부터 시점적으로 자동차보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동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모교 재학생을 위한 특기집학금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表)

관악대상 후보 총22명 심사

본회는 지난 3월 4일 한국언론재단 독련실에서 제6회 서울대출신총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회를 개최했다.

1월 31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참여부문에 4명, 협력부문에 1명, 영광부문에 8명을 추천받았다. 지난해 수상하지 못한 후보가 자동으로 재추천됨

에 따라 전체 후보자는 참여부문 8명, 협력부문 3명, 영광부문 13명이 추천됐다.

이날 회의에는 林光洙회장과 孫一振운영위원장을 비롯해 白文基·韓斗鎮·金哲淳·辛東一·朴世熙·金漢澈·韓相宇·洪性大·俞徽子·朴仕仙·金仁圭·許 龍운영위원, 모교 白忠鎭대학원장 등

이 참석했으며, 許 龍사무총장의 공적사항 보고 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지찬 후보자들을 검토한 끝에 참여부문에 동아대학 姜信浩회장, 협력부문에 후배동 大木圭대표이사, 영광부문에 모교 의대 文信泰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운영위원회의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악대상 후보추천 방법과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李)

지를 알려준다.

2권 : 내 마음의 동굴

필자들에게 성장의 나침반이 돼 방향을 알려준 바늘들의 번과 갇힌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그 인물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3권 : 다섯 수레의 책

필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준 책 이야기. 오늘날 현대에 있는 교육자나 젊은이가 꼭 한번 읽기를 권하며, 그 속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잘 가꾸어 나가기를 바란다.

참여한 명예교수 : 姜信澤 丘仁煥 金漢澈 金珠泰 金時俊 金安濟 金勇一 金容履 金允植 金貞順 金壽煥 金俊錫 金重述 金普均 金學志 文龍 朴甲珠 朴東緒 朴相大 朴世熙 朴龍安 朴榮德 潘性執 宋海均 眞鏡度 沈明錫 沈在真 梁承圭 吳翰泓 劉權俊 李桓 李光奎 李東聯 李勝漢 李相扶 李鶴阿 李容男 李仁圭 李正浩 李忠進 李炫履 林鍾哲 張鍾顯 鄭應均 鄭元植 鄭錫弘 趙錫俊 趙錫步 蔡敬勳 車京守 車載善 崔鍾泰 河永七 韓相福 韓仁圭 許 龍 黃迪仁 (서울대학

교출판부)·값 각권 13,000원, 연락처 관매과 880-7995)

■ 그해 겨울은 뜨거웠다

一金秉浩·金仁圭·車曉純·龍太榮·池鍾學 외

금융위기 때 KBS가 전개한 전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 국민의 자력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며 큰 감동을 안겨줬다. 그런 힘을 믿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금모으기 운동의 불꽃이 지펴진 배경과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국회의원 金秉浩(당시 KBS 보도본부장)·KBS 金仁圭(73년 文藝大卒·당시 보도국장)이사·KBS 車曉純(당시 경제부장)해설위원·KBS 사회부 龍太榮(89년 法大卒·당시 경제부 기자)차장, KBS 연구원 池鍾學(당시 뉴스라인 비주관)교수·국민은행 金成誌(당시 주먹은형 홍보부장)부행장·張炳珠(68년 丁大卒·당시 대우 사장)·李信和(93년 高大卒)강송작가 등 당시 프로그램 제작진이 뛰어놀았다. (서해문집刊·값9,500원) (寶)

노리나무광장



李炯均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

흔하디 흔한 얘기로 우리 나라에서 단결력이 가장 센 단체로 세 개를 꼽는다. 첫째로는 모 지역 향우회이고 둘째로 해병대 동지회이고 나머지는 모 대학 동창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치고 넘어 갈 수 없는 것은 모 대학 동창회의 단결력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인하고 있고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그 대학 출신은 직장에서도 어느 조직에서도 간에 서로 끌어 주고 밀어 주,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모임을 만들자는 것은 하나의 터부처럼 여겨진다. 서울대 동문회

을 많이 하면 근거가 없더라도 타 대학 출신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등 오해를 사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러나 유독 서울대 출신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터부처럼 여겨진다. 서울대 동문회

서울대 출신이 모였다고?

고아!」라고 감탄을 금치 못한 다.

주로 사립대학의 경우이기 는 해도 여러 대학과 출신들은 사회 각 분야별로 모임을 만들어 친목과 단결을 도모해 오고 있다. 신원화다 하여 끼리끼리 모임을 갖는다는 뉴스가 신문 의 인물 등장단을 심심찮게 장식한다. 그리고 「올해의 자랑스런 동문」이라고 하여 시상식도 갖는다. 타 대학 출신도 자기와는 다른 대학이기는 해도 지인이 상을 타면 이들의 수상을 축하해 준다.

심지어 한 직장에서도 각 대학 출신의 모임이 공개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가 모 대학 출신일 경우 인사실에 최고 경영자와 같은 대학 출신이 승진

리 되면 후에 술자리를 함께 하려고 해도 뭔가 껄껄치 하여 서로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놓고 서울대 출신 모임을 조직한다는 것은 무슨 부수조직이라도 결성하는 것만큼이나 모험적인 일이다.

얼마전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이 만지자만이 있으나 「관악연인회」를 만들었을 때 외부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것은 우리의 풍토로 보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어느 외부 단체가 「관악연인회」를 만들었을 때에도 조금 더 눈쌀 필요가 없었다.

누구의 말처럼 「좋은 대학 나와 성공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향한 고연의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본보 논설위원)

新刊



■ mentor series (전3권)

— 모교 명예교수 57인

모교 명예교수 57인이 오늘날의 젊은이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을 담은 「멘토리 시리즈」(전3권)을 펴냈다.

1권 : 끝나지 않은 강의
필자들이 스스로도 배우는 중이었던 20대 청년기의 이야기. 첫 강의를 준비하던 마음가짐, 처음 스승의 강에 들어서면서 깨닫는 것, 대학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설계하고 공부하는 어떻게 해 나갈



<작가역력>

金昇姬 作

「정물-풍경」(브로치), 98년 한국 현대 실스쿠아, 으브제 정은, 금부, 자마노, 14K핀, 4.5×8cm, 2004.

▲89년 모교 미술과 졸업
▲73년 美大(106세대 미술대학원)졸업
▲7년 제1회 부주관 비엔날레출품
▲98년 한국 현대 실스쿠아, 으브제 정은, 금부, 자마노, 14K핀, 4.5×8cm, 2004.
▲현재 국민대 공예디자인과 교수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지난 3월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을 수상한 3명의 동문에 대한 공적사항과 수상소감을 소개한다.

참여부문

동아제약 姜信浩 회장



▲1952년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수석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한국전년회의소 중앙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UN한국협회 부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회의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인으로서 한국 제약업계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한국 산업·과학기술분야와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 등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모교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역임하고 1974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총동창회 부회장·고문을 맡으며 동창회 발전과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난 61년 입학으로 시작해 63년 현재와 같은 드림킴으로 바뀐 「박카스」를 개발한 주역이자 「박카스」라는 이름을

직접 지은 장본인으로, 동아제약 한 국 제약업계 1위의 기업으로 발전시키며 40년간 의약품 생산과 신약개발 연구소 설립 등 의약사업과 국민보건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또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 1987년 수석문화재단을 설립,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과 의약계 학술 발전을 위해 「동아의료저작상」, 약학계 후임 및 공익적인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약사금탑상」 등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업인 1% 사회환원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담당했다.

▲姜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나니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인이 이익의 1%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공헌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채로운 활동을 얻어 1%가 아닌 2%, 5% 클럽을 만드는 회사가 꾸준히 생겨나 경제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기업의 나눔의 문화 확산은 이 뜻을 사람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십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동문 여러분의 격려의 뜻으로 알고 전경련 회장으로서 있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협력부문

(주)휴맥스 卞大圭 사장



▲1983년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벤치리더스클럽 회장,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인 셋톱박스 개발에 성공, 현재 유럽에서 세계적인 회사들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상품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우리 나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며,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12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卞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15년 전 창업을 하여 숱한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이를 보다 큰 용기와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교와 동문 사회에 형성된 정신적 자양분이 적지 않은 지원과 격려가 됐기 때문이며, 앞으로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높은 기개와 자부심으로 회사를 보다 훌륭하게 키워나가 우리 경제의 진운을 개척해나가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부문

모교 산부인과학교실 文信容 교수



세계 최초로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성과를 이룩한 뿐 아니라 한국의 생명공학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3백여 편의 산부인과 관련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국내 산부인과학의 초석을 다졌으며, 우수하고 유능한 젊은 전문 의들을 양성하는데 헌신해오고 있다.

▲文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전에 복제된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서 우리 연구팀의 책임연구자는 수의대 黃禹錫교수이며, 수의대 李柄千·姜成根교수, 의대 安圭里교수 등 모두 나눌 수는 없지만 30여 명의 연구진에게 이 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이 조그만 연구결과로 향후 우리 나라에서 미래의 학인 세포치료를 완성하라는 동문 여러분의 뜻으로 생각하고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부채	
1. 유동자산	(3,774,961,720)	1. 유동부채	(109,232,492)
(1) 당좌자산	3,774,961,720	1) 예수금	14,215,989
(1) 현금과 예금	3,715,683,005	2) 미지급금	29,836,220
2) 미수금	0	3) 외상매입금	0
3) 미수수익	34,514,847	4) 선수수익	24,184,900
4) 받을 이용	0	2. 고정부채	(31,065,613)
5) 유가증권	2,778,500	1) 수취보증금	2,500,000
6) 제세입납금	22,984,716	2) 외적금·역출납금	26,565,613
		자산	(3,670,500,045)
2. 고정자산	(4,830,805)	1. 자본금	(4,161,271)
1) 지급보증금	0	1) 자본금	4,161,271
2) 전전전화가입권	180,000	2) 이익잉여금	(3,666,338,774)
3) 비품	61,360,636	1) 자기비행 이익잉여금	3,666,338,774
4) 장기상각증당금	56,728,731	2) 당기이익잉여금	(56,287,116)
합 계	3,779,732,507	합 계	3,779,732,507

손 의 계 산 서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1. 매출액	(239,271,400)	15) 부가서비스	27,543,610
1) 광고료	239,271,400	16) 수익사업 비용	0
2) 매출환가	(709,765,010)	17) 기금수수료	577,173
3) 간행물비	709,765,010	5 사업(명업) 손실	(5,112,275,866)
3) 매출환가이익	△470,493,610	6) 일반회계 수익	(1,170,113,125)
4) 사업비	(655,782,246)	1) 회계회비	993,673,186
1) 인건비	110,475,620	2) 수입이자	206,016,530
2) 퇴비	53,649,867	3) 전로금	280,326,139
3) 의비	10,060,520	4) 청수금	8,097,270
4) 전산처리비용	45,239,244	7) 일반회계 비용	(100,134,385)
5) 사무비	18,858,866	1) 2차회계 2차회계	0
6) 세금과 공과	13,069,580	2) 장손실	300,000
7) 보험료	4,763,890	3) 기부금	3,000,000
8) 기타관리비용	28,566,613	4) 기부금상환	96,834,385
9) 장기상각증당금	4,126,565	5) 유가증권 평가손	0
10) 전전전화가입	72,914,171	8) 특별손실	0
11) 직원차량비	23,200,000	1) 2차회계특별손실	0
12) 조직장비	215,692,714	9) 일반회계장준이익	(56,287,116)
13) 지지금	18,082,246	10) 법인세 등	
14) 상비	1,362,300	11) 장기대이익	(56,287,116)

의와 같이 공고함

2004.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약학대학

신임 회장에 李金器 동문 선출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2월 28일 서울프라자 호텔 뒤편홀에서 동문 1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회장의 인사발과 모교 朱向涉학장의 격려사에 이어 본회 許 啓(68년 文輝大卒) 사무총장이 權信英(61년卒)·李煥淳(65년卒)부회장, 盧煥成(61년卒)·禹山대 교수·鄭美和(63년卒)·여동문회 부회장·千文字(65년卒)·모교 교수·朴榮吉(65년卒)·신라약국·韓圭謙(68년卒)·동아 제약 부회장 등에게 '총동창회장'을 수여했다.

또 회장이 동창회를 빛낸 李善善(70년卒·현대백화점약국)·金一(71년卒·대경로약국)·文東顯(72년卒·충북대 교수)·姜應求(75년卒·구로메디칼약국)·金炳熙(75년卒·팜스넷대표)·趙春漢(77년卒·삼화약국)·崔鍾秀(82년卒·참미약국)·權賢士(83년卒·여동문회 편집위원)·鄭奉基(83년卒·종로프라자약국)·金鍾姬(86년卒·부광약품 개발부장)·高元奎(90년卒·코가리약국)·朴順德(91년

卒·변호사)·趙京禧(92년卒·세계약국)·孫賢兒(92년卒·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權重昌(모교 임상약학연수원 4기 졸업·신양약국)등에게 「약대동창회장상」을 전달했다.

이날 최우수 졸업자로 선정된 모교 제약학과 鄭志漢과, 약학과 金鍾廷양에게 상패와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李禮植 회장과 임원진부 小武徹副회장에 감사패를, 최근 대한약사회 회장에 취임한 元喜睦(77년卒)등인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이후 이회장은 모교 재학생 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2백50만원, 약대동창회 뉴욕지부(회장 成壽德)가 재학생 1명에게 2백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金器(59년卒·임동제약) 회장·본회 부회장 등단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李海政(49년卒)·梁承龍(59년卒)·李薰子(60년卒) 등문을 각각 선임했다.

상과대학

재학생 40명에게 장학금 수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晟)는 지난 3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2003학년도 최우수 졸업자 및 최우수 논문 시상식과 2004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최우수 졸업자로 경영학과 김성원 군과 경제학부 박선영 양이 선정됐으며, 경영학과 신유리 양이 「핵심스의 한국시장 진입전략」, 경제학부 김희광 군이 「대학생의 건전한 신용을 창출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이란 논문으로 최우수 졸업 논문을 수상했다.

이후 장학금 전달식에서 각

목지장학금을 출연한 동문들이 모교 경영학과·경제학부 재학생 40명에게 총 6천5백52만4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 및 동기회는 다음과 같다. 朴容晟회장, 沈鼎求(57년卒)·李升雨(57년卒)·金榮奎(59년卒)·金承萬(63년卒)·朴英珠(63년卒)·崔昌杰(64년卒)·洪性甫(64년卒)·李哲柱(65년卒)·俞鎮茂(66년卒)·鄭啓成(66년卒)·金東寧(68년卒)·金正泰(70년卒)·崔幸周(70년卒)·洪龍奎(72년卒)·李鍾基(73년卒)·李鍾賢(73년卒)·李煥培(73년卒)·崔成鎰(73년



최우수 졸업자 박선영(右)양에게 상패를 주는 朴容晟회장.

卒)·文大源(75년卒)·安晁台(75년卒)·南 鎰(76년卒)·河永求(76년卒)·李載日(77년卒)·鄭泰錫(77년卒)·李京燦(86년卒)·동문, 19회 동기회(회장 李壽益)·28회 동기회(회장 趙圭植)·경계 72 동기회(회장 金植賢)·경영 34 동기회(회장 趙成允).

간호대학

골프·등산대회를 활성화하자



간호대학동창회(회장 嚴敎子)는 지난 3월 17일 모교 연건캠 대스 간호대학 신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회비인상 및 골프·등산대회 활성화 방안 등을 의결하고 동문간 친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정실의를 통해 연회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평생회비를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평생회비 인상안은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신임회원 환영식에 10여 명의 새대들이 참석해 선배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는 朴明子(56년卒)고문, 朴根子(64년卒)·金彩淑(66년卒)부회장, 모교 金錦順부학장(72년卒), 李仁淑(77년卒)교수 등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表)

◀선배가 후배에게 배지를 달아 주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003년도

재) 관 약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4,978,786,551	부채	
(1) 현금	4,978,786,551	1. 유동부채	81,409,119
(2) 현금및현금성자산	4,190,494,321	1.1 현금	4,445,791
(3) 현금및현금성자산	0	2. 유동부채	2,018,490
(4) 현금및현금성자산	45,049,490	3. 유동부채	7,168,161
(5) 현금및현금성자산	121,485,480	4. 유동부채	7,733,000
(6) 현금	0	5. 유동부채	46,840,000
(7) 현금	0	6. 유동부채	10,683,719
(8) 현금	35,787,310	7. 유동부채	1,096,753,546
(9) 현금	0	8. 유동부채	1,064,635,044
(10) 현금	2,212,267,803	9. 유동부채	82,238,462
(11) 현금	911,692,672	10. 유동부채	0
(12) 현금	910,000,000	11. 유동부채	1,178,172,999
(13) 현금	0	12. 유동부채	0
(14) 현금	1,300,373,131	13. 유동부채	0
(15) 현금	635,715,410	14. 유동부채	0
(16) 현금	0	15. 유동부채	0
(17) 현금	0	16. 유동부채	0
(18) 현금	0	17. 유동부채	0
(19) 현금	0	18. 유동부채	0
(20) 현금	0	19. 유동부채	0
(21) 현금	0	20. 유동부채	0
(22) 현금	0	21. 유동부채	0
(23) 현금	0	22. 유동부채	0
(24) 현금	0	23. 유동부채	0
(25) 현금	0	24. 유동부채	0
(26) 현금	0	25. 유동부채	0
(27) 현금	0	26. 유동부채	0
(28) 현금	0	27. 유동부채	0
(29) 현금	0	28. 유동부채	0
(30) 현금	0	29. 유동부채	0
(31) 현금	0	30. 유동부채	0
(32) 현금	0	31. 유동부채	0
(33) 현금	0	32. 유동부채	0
(34) 현금	0	33. 유동부채	0
(35) 현금	0	34. 유동부채	0
(36) 현금	0	35. 유동부채	0
(37) 현금	0	36. 유동부채	0
(38) 현금	0	37. 유동부채	0
(39) 현금	0	38. 유동부채	0
(40) 현금	0	39. 유동부채	0
(41) 현금	0	40. 유동부채	0
(42) 현금	0	41. 유동부채	0
(43) 현금	0	42. 유동부채	0
(44) 현금	0	43. 유동부채	0
(45) 현금	0	44. 유동부채	0
(46) 현금	0	45. 유동부채	0
(47) 현금	0	46. 유동부채	0
(48) 현금	0	47. 유동부채	0
(49) 현금	0	48. 유동부채	0
(50) 현금	0	49. 유동부채	0
(51) 현금	0	50. 유동부채	0
(52) 현금	0	51. 유동부채	0
(53) 현금	0	52. 유동부채	0
(54) 현금	0	53. 유동부채	0
(55) 현금	0	54. 유동부채	0
(56) 현금	0	55. 유동부채	0
(57) 현금	0	56. 유동부채	0
(58) 현금	0	57. 유동부채	0
(59) 현금	0	58. 유동부채	0
(60) 현금	0	59. 유동부채	0
(61) 현금	0	60. 유동부채	0
(62) 현금	0	61. 유동부채	0
(63) 현금	0	62. 유동부채	0
(64) 현금	0	63. 유동부채	0
(65) 현금	0	64. 유동부채	0
(66) 현금	0	65. 유동부채	0
(67) 현금	0	66. 유동부채	0
(68) 현금	0	67. 유동부채	0
(69) 현금	0	68. 유동부채	0
(70) 현금	0	69. 유동부채	0
(71) 현금	0	70. 유동부채	0
(72) 현금	0	71. 유동부채	0
(73) 현금	0	72. 유동부채	0
(74) 현금	0	73. 유동부채	0
(75) 현금	0	74. 유동부채	0
(76) 현금	0	75. 유동부채	0
(77) 현금	0	76. 유동부채	0
(78) 현금	0	77. 유동부채	0
(79) 현금	0	78. 유동부채	0
(80) 현금	0	79. 유동부채	0
(81) 현금	0	80. 유동부채	0
(82) 현금	0	81. 유동부채	0
(83) 현금	0	82. 유동부채	0
(84) 현금	0	83. 유동부채	0
(85) 현금	0	84. 유동부채	0
(86) 현금	0	85. 유동부채	0
(87) 현금	0	86. 유동부채	0
(88) 현금	0	87. 유동부채	0
(89) 현금	0	88. 유동부채	0
(90) 현금	0	89. 유동부채	0
(91) 현금	0	90. 유동부채	0
(92) 현금	0	91. 유동부채	0
(93) 현금	0	92. 유동부채	0
(94) 현금	0	93. 유동부채	0
(95) 현금	0	94. 유동부채	0
(96) 현금	0	95. 유동부채	0
(97) 현금	0	96. 유동부채	0
(98) 현금	0	97. 유동부채	0
(99) 현금	0	98. 유동부채	0
(100) 현금	0	99. 유동부채	0
(101) 현금	0	100. 유동부채	0
(102) 현금	0	101. 유동부채	0
(103) 현금	0	102. 유동부채	0
(104) 현금	0	103. 유동부채	0
(105) 현금	0	104. 유동부채	0
(106) 현금	0	105. 유동부채	0
(107) 현금	0	106. 유동부채	0
(108) 현금	0	107. 유동부채	0
(109) 현금	0	108. 유동부채	0
(110) 현금	0	109. 유동부채	0
(111) 현금	0	110. 유동부채	0
(112) 현금	0	111. 유동부채	0
(113) 현금	0	112. 유동부채	0
(114) 현금	0	113. 유동부채	0
(115) 현금	0	114. 유동부채	0
(116) 현금	0	115. 유동부채	0
(117) 현금	0	116. 유동부채	0
(118) 현금	0	117. 유동부채	0
(119) 현금	0	118. 유동부채	0
(120) 현금	0	119. 유동부채	0
(121) 현금	0	120. 유동부채	0
(122) 현금	0	121. 유동부채	0
(123) 현금	0	122. 유동부채	0
(124) 현금	0	123. 유동부채	0
(125) 현금	0	124. 유동부채	0
(126) 현금	0	125. 유동부채	0
(127) 현금	0	126. 유동부채	0
(128) 현금	0	127. 유동부채	0
(129) 현금	0	128. 유동부채	0
(130) 현금	0	129. 유동부채	0
(131) 현금	0	130. 유동부채	0
(132) 현금	0	131. 유동부채	0
(133) 현금	0	132. 유동부채	0
(134) 현금	0	133. 유동부채	0
(135) 현금	0	134. 유동부채	0
(136) 현금	0	135. 유동부채	0
(137) 현금	0	136. 유동부채	0
(138) 현금	0	137. 유동부채	0
(139) 현금	0	138. 유동부채	0
(140) 현금	0	139. 유동부채	0
(141) 현금	0	140. 유동부채	0
(142) 현금	0	141. 유동부채	0
(143) 현금	0	142. 유동부채	0
(144) 현금	0	143. 유동부채	0
(145) 현금	0	144. 유동부채	0
(146) 현금	0	145. 유동부채	0
(147) 현금	0	146. 유동부채	0
(148) 현금	0	147. 유동부채	0
(149) 현금	0	148. 유동부채	0
(150) 현금	0	149. 유동부채	0
(151) 현금	0	150. 유동부채	0
(152) 현금	0	151. 유동부채	0
(153) 현금	0	152. 유동부채	0
(154) 현금	0	153. 유동부채	0
(155) 현금	0	154. 유동부채	0
(156) 현금	0	155. 유동부채	0
(157) 현금	0	156. 유동부채	0
(158) 현금	0	157. 유동부채	0
(159) 현금	0	158. 유동부채	0
(160) 현금	0	159. 유동부채	0
(161) 현금	0	160. 유동부채	0
(162) 현금	0	161. 유동부채	0
(163) 현금	0	162. 유동부채	0
(164) 현금	0	163. 유동부채	0
(165) 현금	0	164. 유동부채	0
(166) 현금	0	165. 유동부채	0
(167) 현금	0	166. 유동부채	0
(168) 현금	0	167. 유동부채	0
(169) 현금	0	168. 유동부채	0
(170) 현금	0	169. 유동부채	0
(171) 현금	0	170. 유동부채	0
(172) 현금	0	171. 유동부채	0
(173) 현금	0	172. 유동부채	0
(174) 현금	0	173. 유동부채	0
(175) 현금	0	174. 유동부채	0
(176) 현금	0	175. 유동부채	0
(177) 현금	0	176. 유동부채	0
(178) 현금	0	177. 유동부채	0
(179) 현금	0	178. 유동부채	0
(180) 현금	0	179. 유동부채	0
(181) 현금	0	180. 유동부채	0
(182) 현금	0	181. 유동부채	0
(183) 현금	0	182. 유동부채	0
(184) 현금	0	183. 유동부채	0
(185) 현금	0	184. 유동부채	0
(186) 현금	0	185. 유동부채	0
(187) 현금	0	186. 유동부채	0
(188) 현금	0	187. 유동부채	0
(189) 현금	0	188. 유동부채	0
(190) 현금	0	189. 유동부채	0
(191) 현금	0	190. 유동부채	0
(192) 현금	0	191. 유동부채	0
(193) 현금	0	192. 유동부채	0
(194) 현금	0	193. 유동부채	0
(195) 현금	0	194. 유동부채	0
(196) 현금	0	195. 유동부채	0
(197) 현금	0	196. 유동부채	0
(198) 현금	0	197. 유동부채	0
(199) 현금	0	198. 유동부채	0
(200) 현금	0	199. 유동부채	0
(201) 현금	0	200. 유동부채	0
(202) 현금	0	201. 유동부채	0
(203) 현금	0	202. 유동부채	0
(204) 현금	0	203. 유동부채	0
(205) 현금	0	204. 유동부채	0
(206) 현금	0	205. 유동부채	0
(207) 현금	0	206. 유동부채	0
(208) 현금	0	207. 유동부채	0
(209) 현금	0	208. 유동부채	0
(210) 현금	0	209. 유동부채	0
(211) 현금	0	210. 유동부채	0
(212) 현금	0	211. 유동부채	0
(213) 현금	0	212. 유동부채	0
(214) 현금	0	213. 유동부채	0
(215) 현금	0	214. 유동부채	0
(216) 현금	0	215. 유동부채	0
(217) 현금	0	216. 유동부채	0
(218) 현금	0	217. 유동부채	0
(219) 현금	0	218. 유동부채	0
(220) 현금	0	219. 유동부채	0
(221) 현금	0	220. 유동부채	0
(222) 현금	0	221. 유동부채	0
(223) 현금	0	222. 유동부채	0
(224) 현금	0	223. 유동부채	0
(225) 현금	0	224. 유동부채	0
(226) 현금	0	225. 유동부채	0
(227) 현금	0	226. 유동부채	0
(228) 현금	0	227. 유동부채	0
(229) 현금	0	228. 유동부채	0
(230) 현금	0	229. 유동부채	0
(231) 현금	0	230. 유동부채	0
(232) 현금	0	231. 유동부채	0
(233) 현금	0	232. 유동부채	0
(234) 현금	0	233. 유동부채	0
(235) 현금	0	234. 유동부채	0
(236) 현금	0	235. 유동부채	0
(237) 현금	0	236. 유동부채	0
(238) 현금	0	237. 유동부채	0
(239) 현금	0	238. 유동부채	0
(240) 현금	0	239. 유동부채	0
(241) 현금	0	240. 유동부채	0
(242) 현금	0	241. 유동부채	0
(243) 현금	0	242. 유동부채	0
(244) 현금	0	243. 유동부채	0
(245) 현금	0	244. 유동부채	0
(246) 현금	0	245. 유동부채	0
(247) 현금	0	246. 유동부채	0
(248) 현금	0	247. 유동부채	0
(249) 현금	0	248. 유동부채	0
(250) 현금	0	249. 유동부채	0
(251) 현금	0	250. 유동부채	0
(252) 현금	0	251. 유동부채	0
(253) 현금	0	252. 유동부채	0
(254) 현금	0	253. 유동부채	0
(255) 현금	0	254. 유동부채	0
(256) 현금	0	255. 유동부채	0
(257) 현금	0	256. 유동부채	0
(258) 현금	0	257. 유동부채	0
(259) 현금	0	258. 유동부채	0
(260) 현금	0	259. 유동부채	0
(261) 현금	0	260. 유동부채	0
(262) 현금	0	261. 유동부채	0
(263) 현금	0	262. 유동부채	0
(264) 현금	0	263. 유동부채	0
(265) 현금	0	264. 유동부채	0
(266) 현금	0	265. 유동부채	0
(267) 현금	0	266. 유동부채	0
(268) 현금	0	267. 유동부채	0
(269) 현금	0	268. 유동부채	0
(270) 현금	0	269. 유동부채	0
(271) 현금	0	270. 유동부채	0
(272) 현금	0	271. 유동부채	0
(273) 현금	0	272. 유동부채	0
(274) 현금	0	273. 유동부채	0
(275) 현금	0	274. 유동부채	0
(276) 현금	0	275. 유동부채	0
(277) 현금	0	276. 유동부채	0
(278) 현금	0	277. 유동부채	0
(279) 현금	0	278. 유동부채	0
(280) 현금	0	279. 유동부채	0
(281) 현금	0	280. 유동부채	0
(282) 현금	0	281. 유동부채	0
(283) 현금	0	282. 유동부채	0
(284) 현금	0	283. 유동부채	0
(285) 현금	0	284. 유동부채	0
(286) 현금	0	285. 유동부채	0
(287) 현금	0	286. 유동부채	0
(288) 현금	0	287. 유동부채	0
(289) 현금	0	288. 유동부채	0
(290) 현금	0	289. 유동부채	0
(291) 현금	0	290. 유동부채	0
(292) 현금	0	291. 유동부채	0
(293) 현금	0	292. 유동부채	0
(294) 현금	0	293. 유동부채	0
(295) 현금	0	294. 유동부채	0
(296) 현금	0	295. 유동부채	0
(297) 현금	0	296. 유동부채	0
(298) 현금	0	297. 유동부채	0
(299) 현금	0	298. 유동부채	0
(300) 현금	0	299. 유동부채	0
(301) 현금	0	300. 유동부채	0
(302) 현금	0	301. 유동부채	0
(303) 현금	0	302. 유동부채	0
(304) 현금	0	303. 유동부채	0
(305) 현금	0	304. 유동부채	0
(306) 현금	0	305. 유동부채	0
(307) 현금	0	306. 유동부채	0
(308) 현금	0	307. 유동부채	0
(309) 현금	0	308. 유동부채	0
(310) 현금	0	309. 유동부채	0
(311) 현금	0	310. 유동부채	0
(312) 현금	0	311. 유동부채	0
(313) 현금	0	312. 유동부채	0
(314) 현금	0	313. 유동부채	0
(315) 현금	0	314. 유동부채	0
(316) 현금	0		

음악대학

14·24회 동기회 장학금 출연

음악대학동창회(회장 韓程宇)는 지난 3월 1일 서울프라자호텔 미수실에서 金正吉(62년卒) 전임회장, 李秀衡(63년卒) 수석 부회장, 李在澈(63년卒)·朴孝尙(68년卒)·洪孝德(77년卒) 부회장, 趙恩永(81년卒) 감사, 모교 안수 (53년卒)·李有珠(53년卒) 명예교수, 金 崑(64년卒) 학장, 金鳳玉(59년卒) 서울오페라단장 등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출연 40주년을

맞이한 14회 동기회를 대표해 李玉姬(64년卒·서울퓨터양성원 음악감독) 동문이 3백70만원,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24회 동기회를 대표해 鄭龍熙(74년卒·성결대 음악과 교수) 동문이 2백20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했다.

이어 韓희장은 1학기 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이상준(기악과 4년)군에게 통곡곡 전악을 전달하고, 피아니스트 李玉姬·羅光宇(64년卒) 동문이 축하 공연을 펼쳤다.

수원입학동문회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전례



입학·산림자원학과 동문들로 구성된 수원입학동문회(회장 鄭潤泰)는 지난 3월 3일 서울 종각역 부근 한일관에서 金樹日(57년卒) 명예회장, 金勝達(61년卒)·禹保命(61년卒)·鄭秀輝(65년卒)·玄正植(70년卒)·徐承鏞(79년卒)·張珍成(82년卒) 부회장, 모교 李敦求(69년卒)·金屋一(80년卒)·李宇新(82년卒)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9월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매

월 네 번째 토요일에 친목 등산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또 각 기별 동기회장간 정기모임을 열어 동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모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동안 일본 북해도대학 연수생을 방문 예정인 모교 재학생들을 지원하기로 의결을 모았다.

현전 이날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鄭희장이 설립한 일성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2명에게 4백90만원을 전달했다.

관악부역인회

골프대회 통해 친목·우의 다져

관악부역인회(회장 曹章鉉)는 지난 3월 9일 뉴서온CC에서 전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 새 골프 동호회장에 韓光宇(70년 文麗大卒·제승엔터프라이즈 인터내셔널 대표) 동문, 총무에 沈文主(75년 文麗大卒·영로리 아시아 대표) 동문, 간사에 趙章源(89년 慶大卒·COSAC INT'L KOREA 대표)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또 12월까지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정기대회를 갖고 오는 10월에 그동안 우승한 동문들을 초청해 결승전을 치르기로 의결을 모았으며, 출인원과 언더파를 기록한 동문에게는 현금 메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 李逢雨(46기 AMP·세종상사 대표) 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에 尹炳和(62년 工大卒·우방무역 회장) 동문, 동기스트에 沈文主 동문, 니어리스트에 曹章鉉 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表相基(65년 工大卒·상사 대표)·崔耀五(67년 工大卒·신우상사 대표)·李英根(70년 工大卒·포르텍스코리아 대표)·李杰(74년 文理大卒·종노드레이팅 대표)·金奎泰(74년 慶大卒·세종통신 대표)·金奎三(79년 法大卒·C&C 엔터프라이즈 대표)·池太厚(79년 師大卒·윌리 대표)·洪起樞(47기 AMP·가나물상 대표) 등 동문들이 참가해 골프선력을 겨뤘다.

국어교육과

새 회장에 朴燦久 동문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朴甲洙)는 최근 코리아호텔에서 모교 李應久(49년卒) 명예교수, 朴英子(50년卒)·禹實慶(51년卒)·鄭應樹(57년卒) 동문을 비롯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일일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朴燦久(60년 師大卒·서울특별시 교육위원) 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수학교육과

尹雄燮 회장 추대



수학교육과동창회(회장 金學敏)는 최근 서울 서초동 로얄프라자에서 동문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일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尹雄燮(66년卒·서울고 교장) 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任成模(65년卒·충북대 교수) 동문, 총무에 李重勳(70년卒·Tri-d 커뮤니케이션 대표)·崔英起(81년卒·모교 교수)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불어교육과

5월 15일 45주년 행사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柳子孝)는 최근 서울 선릉역 부근 상제리대 뷔페에서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1950~60년에 입학한 원로 동문들의 떠남과 추억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새로 입회한 동문들에게 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2004년 사업계획안을 통해 오는 5월 15일 오후 4시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일일홀에서 불어교육과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갖기로 하고, 동기문집을 발간하기로 의결을 모았다.

- 바로 잡습니다 -

지난호(제312호) 6면에 소개된 ROTC동문회 정기총회 기사 중 신임 회장「梁在炫」을「梁在鉉」으로 바로 잡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제17대 총선 관련 특강 열어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金駒)는 지난 3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별관홀에서 具範謨(56년卒)·朴鍾圭(61년卒) 전임회장, 朴丁云(79년卒) 부회장, 申旭熙(84년卒) 총무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를 개최했다.

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인하대 金容格(75년卒) 교수와 중앙대 張勳(85년卒) 교수가 「제17대 총선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각 특강을 펼치며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金奎泰(48년卒) 명예교수, 상임사 金相慶(49년卒) 회장을 비롯해 吳在熙(57년卒) 사법당기념사업회

장, 桂昌鎬(54년卒) 동화연구소장, 새종대 南時旭(58년卒) 석좌교수, 黃仁政(58년卒) 강원남 전연구원장, 金漢應(59년卒) 前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국제해 양법재판소 朴權浩(59년卒) 재판관, 미디어리서치 鄭九鎬(59년卒) 회장, 세무회계사무소 李九熙(60년卒) 대표, 李澤敏(61년卒) 前서유교대 총장, 순천향대 李清陟(63년卒) 교수, 한국 경찰조사연구소 卞時輝(63년卒) 회장, 외교통상부 李鍾武(64년卒) 본부대사, 한국신문방송인클럽 李炯均(64년卒) 회장, 張明勳(64년卒) 前영남일보 사장, 鄭好輝(64년卒) 前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신임 동기회장에 위촉장 수여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동창회(회장 金方勝)는 지난 3월 3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가을에 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또 同窓에서 문연하고 있는 (사)한국보건정책보존연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날우이웃 및 복지관 지원, 내·외국인 노동자

무단진전 등을 걸치기로 의결을 모았다.

金회장은 이날 신임 동기회 회장·사무국장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4기 동기회 金瑞福 회장·차 鍾사 무국장, 8기 동기회 장한기 회장·최병덕 사무국장, 9기 동기회 정누사 회장·김재국 사무국장, 13기 동기회 자용광 회장·최대중 사무국장. (表)

만평

李元靚



2004년 4월

“한국, 중국 변방의 약소국으로 전략할 수 있다”

동문을 찾아서

세계경제연구원 司空憲이사장

대답 : 동아일보 경제부 金光賢
(90년 社會大學)기자

세계경제연구원 司空憲(64년 鹿大卒) 이사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이름이 더 잘 알려진 경제학자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를 짚어줄 최적임자로 꼽힌다.

司空이사장은 잦은 해외 세미나, 정책 자문, 연구생활로 제무부 장관 재직 때보다 더 바쁘면서도 『도대체 “한국경제 호(號)”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지,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짚어달라』는 동문들의 요청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이 한국의 운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격정적인 목소리로, 통찰력있는 견해를 제시해 주었다. 이 인터뷰는 3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빌딩 25층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이뤄졌다.

— 이사장님, 안뵈옵습니까? 귀국하시자마자 피로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근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국제회의의 사후나 연설에 초청받는 기회가 많습니다. 가끔 정부 정책 자문에도 응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옛것은 방콕에서 열린 ASEM 경제협력 태스크 포스 회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비중 있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많습니 다. 다음 이 회의는 프랑스 코푸르트, 동경,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그전에도 ASEM 비전 그룹, 국제금융제개척그룹 등의 의장으로 보고서 작성하느라 바빴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국제회의의 일정이 계속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도 계속해야하고 항상 바쁘게 지냅니다.”

— 이사장님은 한국의 경제화가 가운 데 미국 워싱턴 정가나 뉴욕 월 가를 포함해 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최근 해외 석학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긴 안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정책 서클이나 IMF 등 국제기구의 긍정적인 평가는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 혹은 이머징마켓 경제치고는 잘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 혹은 아르헨티나보다는 잘한다는 뜻이지요. 한국은 다른 환란을 겪은 많은 나라에 비해 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또한 한국은 환란이후 일본이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해냈으니까요.



진 나라입니다. 앞으로는 매년 7% 이상 성장하면 매 10년 이내에 GDP가 두 배씩 늘어납니다. 2020년이면 2010년의 2배 이상, 2030년이면 또 그것의 2배 이상이 됩니다. 2030년이면 미국 경제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 중국 경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연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중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영 기업들의 비효율과 국영은행의 부실채권, 지역간의 소득격차,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간의 모순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는 잘 되어 갈

것은 비행기로 2시간 반 거리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2시간 반 만에 못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면 서울은 중국의 중심부에 있는 것 같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도적인 면에서나 인적자원 면에서 중국이 제곱할 수 없는 많은 여건을 한국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여타 여건만 만들어주면 중국을 겨냥한 외국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물류, R&D, 교육, 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이 현명하다면 중국의 이웃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 이왕 말씀하신 김에 한국의 통일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6자 회담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당사자인 남한 북한과 함께 앉아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통일의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인 1989년 9월 한국에 와서 통일이 언제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마 한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끝없는 기다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만 대가 한국보다 더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해냈습니다. 독일 역사는 폴 수상을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폴 수상은 미국과 외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통일을 적극 지지했고, 프랑스와 영국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강한 통일한국을 중국이 원했습니까? 일본이 원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을 도와줄 나라는 미국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실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요즘 우리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반미 감정은 이러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려했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지정학적인 입장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 최근 세계의 흐름을 보건데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 나아가 한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총론에서는 찬성하다가 결론에 들어가면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함입니다. 저는 지난 년 대통령 선거 때에 교육대통령을 뽑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식이 모든 경제활동과 국가의 전략적 자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이렇게 유리한 고지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경화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 시각에서 활용해야 안정된 정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자 “정부 조직개편해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이런 칭찬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지요. 개도국 수준에 맞춰 잘한다는 것은 OECD 회원국인 우리로서는 불만스러운 것 아닙니까.”

— 이사장님은 일전에 한국이 다시 중국의 변방이 될지 모른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지적이 라고 보입니다. 또 누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중국 경제의 지력과 최근 움직임,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마디로 중국의 급성장을 보면 한국의 지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대단히 정신차려야 합니다. 한국은 적어도 지난 2천여 년 동안 중국의 변방 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지만 중국 경제는 182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전체 GDP의 33%에 달하는 경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컸던 것이지요. 이렇게 중국은 저력을 가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중국 사람이 적어도 지도자들은 중국이 세계를 군림했던 영광을 되찾아야한다는 굳은 심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것으로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 특히 이 지역에 서의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영향력은 두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는 중국 변방의 일개 약소국으로 전략하게 됩니다.

중국 발전의 원동력을 보면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매우 큼니다. 수출의 50% 이상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이뤄집니다. 세계 5백대 기업이 중국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평균은 한국에 뒤처져 있지만 머지 않아 분야별로 한국보다 중국은 분야가 많이 생겨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한국은 중국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큰 도전인 반면 큰 기회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서울

시대에 땅이 넓지도 비옥하지도 못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장 적은 사람밖에 없었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인 때가 됐으니 말입니다. 지식은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지식을 갈구하는 강도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초과수요가 문제 되는 나라입니다. 법으로 공부 못하도록 막는 나라,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가는 나라입니다.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맞는 정력의 열이 '남과 같을 때는 지혜'를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국가발전의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수단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만 알면 대답이 다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물결, 즉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의 큰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지구촌화로 변형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경제에 관련한 국경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하기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기업이 몰리고, 그 결과 일자리가 몰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일자리가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복지향상 아닙니까. 따라서 인할 능력과 약육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우선 인노, 정치가 안정되고 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노사관계가 개선돼야 합니다. 물론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새 정부 들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해오셨는데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재정부와 기획예산처, 금감위를 합쳐서 2개 부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조조정입니다. 경제정책을 보고 기획, 조정하는 부서에 예산이 가야합니다. 지금 부총리제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힘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과거 5개년 계획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기능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조직을 통해서 일합니다. 조직은 목수가 집을 짓는데 비유하면 연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와 좋은 목수가 있어도 연장이 좋아야합니다.』

— 지난해 한국 경제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환란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성장률은 98년

—6.7%, 99년 10.9%, 2000년 9.3%, 2001년 3.1%, 2002년 6.3%, 2003년은 3%내외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 환란이후 우리는 해외여건의 호전으로 수출이 잘 되었고 경기 회복에 빨랐지요. 그 이후 세계 경기의 침체와 함께 내수 특히 민간소비 조장을 위한 신용카드, 자동차 등 각종 지출을 과잉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사상 유례 없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GDP의 거의 60%에 달하는 민간소비가 급속히 늘어났고, 너무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200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게 됐고 지난해 가계부채 때문에 민간소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전년 2.4분기부터 가계소비가 계속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아직도 줄어든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마저도 작년 2.4분기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

주자이면서 막 OECD에 가입한 한국경제의 현주소입니다. OECD 수준인 실금 플러스 플레이어가 되려면 계속해서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년 보기 플레이어나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잘 나다가 해지느냐 러프에 들어가 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기운을 지켜 정도로 가야 합니다. 흥분하여 무리하면 골프 게임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시는 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신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건강비밀이 있다면 동료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건강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운동을 많이 합니다. 주말이면 골프하고, 청계산에도 자주 갑니다. 옛골프 때부터 2시간 반이나 3시간 걸립니다. 국산도 즉 단전호흡을 오래했습니다. 재무부장관 재직시에 시작했으니 20년



“기업 투자여건 개선·성숙된 시민의식 절실” 세계적 석학 초청강연으로 국제 흐름 전파 20여년 골프·등산·단전호흡으로 건강유지

출이 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해 기업투자를 늘이는 것입니다.』

— 탄핵이다. 총선이다 해서 나라가 흔들 시끄럽습니다. 이 변수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탄핵자체보다 국론분열이 더 문제입니다. 장기화되면 경제를 어렵게 만들겠지요. 기업인장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부처에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CNN 등에는 한국의 각종 격렬한 노사관계 시위 장면만이 자주 비치는 데 이제 국론분열에 따른 정치적 시위 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게 되면 투자자 늘어날 수 없지요.』

반면에 이번의 탄핵정국도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잘 대처해 민주헌정제도가 작동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오히려 전하위부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차분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근의 경제상황을 골프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의 현 위치는 골프로 비유하면 핸디캡 18정도 즉, 보기 플레이어가 수준입니다. 그게 바로 신흥공업국의 선두

정도가 되어가는 군요. 10년 정도 도장에 나갔는데 요즘은 도장에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합니다. 준비운동 10~15분만 하 호흡은 조금만 하고 정리운동 10~15분 정도 합니다. 골프 핸디캡은 14입니다만 요즘은 85~90 사이 치면 만족합니다.』

— 지금 몸담고 계시는 세계경제연구원원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십시오.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에도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잡혀 있지요.

『장관을 그만두고 나니 정부 산하기관이나 국제연구기관 등을 맡지 않았으나,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등 여러 가지 권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저의 학회와 정부경험을 살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 세계경제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해도 세계화(Globalization)란 말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 세계화의 흐름을 국내에서 정착하는 사람들, 기업의 홈페이지먼트들 그리고 우리 국민모두에게 알리고 제대로 대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제가 신문에 글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석학, 경제, 업계, 언론계의 리더들을 초청해 세계

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에 어떤 함축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강연회와 국제 세미나 등을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4월 7일에는 북한 경제에 대해 최근에 또다른 책을 출간한 마이크 볼랜드 박사가 강연하게 돼 열렸습니다. 또한 우리에 게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 석학이며 IMF부총재 스탠리 피셔가 5월 13일 초 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 몸담고 계시는 세계경제연구원원은 비영리 기구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영리기관으로 정부나 기업의 용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후배들에게 신세지가 싫어서입니다. 세계 유명 학자들이 자문해달라는 주문도 많이 있지만 영리목적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법인회원 1년에 3백만원, 개인회원이 20만원입니다. 강연회를 하면 대기업 임원들과 주요 금융기관에서 많이 참석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법인회원 수가 줄어 들고 있어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 가깝게 지내는 상대 중 누가 있다면 누구신지요? 평생한 58학번이시지요.

『최근 전년도인 서강대 金秉柱(62년)교수, 송길대 柳東吉(64년)교수 등과 친하게 지내는데 자주 만나며, 학계에는 서용대 洪元甲(62년)교수, 고려대 朴英植(63년)교수 등과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의 없이 자주 만나는

친구로는 徐榮厚(62년)전전교부 장관, 徐泰植(63년)수상외교계장관 명예회장, 石學謙(64년)전교무부 부회장 등이 있습니다. 李振成(63년)전대우부장관, 崔東洙(63년)전서울시 정무부시장, 朴泰鍾(65년)전국회의원 등이 모두 상대 58학번입니다.』

— 늦깎이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딸만 둘입니다. 둘 다 이화학대에 보냈습니다. 큰 딸은 영문학파를 나와 결혼해 같은 아파르트에 삽니다. 다섯 달 전에 첫 손녀를 뱌습니다. 둘째는 이대에서 경영학 학사와 석사를 했는데 이제 결혼시켜야 합니다.』

— 동료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서둘러들 없애야한다는 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려면 길어집니다. 서둘러들 없애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나친 열의외의식이나 지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서용대 출신은 우리사회의 극소수 아닙니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겸손하고 솔선투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 비변신대 오랜 시간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대학

부리를 찢아서

미술대학 동창회

조형연구소 설립 ... 예술문화 발전 주도

인터넷 미술 전시회로 동문 결속 다져

1946년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공포됨으로써 역사적인 서울대학교의 탄생과 더불어 예술대학이 신설됐다. 종로구 동숭동에 미술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우리 나라 미술계의 중추적 인물들을 무수히 배출하고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창설 당시의 예술대학 미술학부는 제1회화과·제2회화과·조각과·도안과 등으로 체제를 갖추었으며 명실상부한 대학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으며, 미술대학은 1953년 예술대학 미술부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으로 개편됨과 동시에 회화과·조각과·응용미술과의 3개 학과로 재조직하고 원래 한 미래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부설 중등고원 양성소를 설치한 것도 이 시기이다.



모교 관악캠퍼스 미술대학 건물.

21세기의 문을 열고 밝은 발전을 내디딘 미술대학은 2000년 3월 「미래산업과 서울대학교」라는 대규모의 전담회를 통해 미술대학 동문들 간의 우애를 다시 한번 다지기도 했다. 디자인 연구동의 준공, 2003년 9월 미술학과과정과 다자인학 박사과정의 신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동 증축과 디자인 연구센터 개설 등을 통해 교육 시설과 연구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경예대 및 파리1대학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속의 미술대학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글 : 김善漢(81년 美大卒) 모교 미술대학

필자가 학교를 다녔던 1950년대 미술대학은 실기 연습실이 부족해 응용미술과도 2·3·4학년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은 했는데 학년별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작품을 보면서 후배들에게 조언도 할 수 있었고 때로는 선배들의 충고를 듣고 작품표현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 지금도 그때의 사구들과는 너무나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립이야말로 가장 풍부한 예술감각을 이룬 때가 아닌가 싶다.

이후 1962년 연건동으로 이전해 미술대학다운 실기실과 부속시설 등 많은 발전을 이룩했으나 또 한번의 이전으로 1972년 공릉동 공대 자리로 입주하게돼 동숭동과는 전혀 다른 대자연속에서 풍

상어하는 예술가 특유의 성격으로 혼자서 작업을 하는 특징적인 형태로 인해 동창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학교 문제가 복잡하게 변하던 시기에 동창회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느낀 학교에 의해 초대 동창회 회장을 맡은 張善漢(51년卒) 동문이 맡게 되고 2대 金永學(52년卒)·3대 故 劉漢元(50년卒)·4대 故 朴世元(50년卒)·5대 文學晉(52년卒)·6대 韓佑植(50년卒)·7대 白文基(50년卒)·8대 金瑞鳳(54년卒) 동문 그리고 필자로 이어지고 있다.

7대 白文基회장 이전에는 동창회로서 미약했으나 이후로는 동창회와 모교간의



2001년 이사회.

유대관계가 원만해지면서 크고 작은 모임과 행사 등을 개최해 친목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특히 8대 金瑞鳳회장은 동문들의 전시회에 많이 참석하는 작가로도 유명했고

■ 연혁

- 1946년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설립
- 1953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으로 개편. 회화과·조각과·응용미술과의 3개 학과로 구성, 부설 중등고원 양성소 설치
- 1960년 10월 10일 미술대학 소속의 미학과를 문리대학으로 이관
- 1961년 2월 27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예술학과 및 부설실습장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체제 정비
- 1963년 2월 1일 종로구 연건동 교사로 이전
- 1972년 9월 1일 성북구 하계동 교양과정부 교사로 이전
- 1976년 2월 28일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으로써 종합대학 속의 단과대학으로의 위상 정립
- 1981년 3월 1일 회화과·조각과·응용미술과 3개 학과 체제를 동양화과·서양화과·조각과·공예과·산업미술과의 5개 학과로 분리 개편
- 1985년 10월 2일 부설 조형연구소 설립
- 1989년 2월 28일 산업미술학과를 산업디자인과로 명칭 변경
- 1999년 5월 25일 공예과 및 산업디자인학과를 디자인학부로 통합
- 2003년 9월 미술·디자인과 박사과정 신설

요도로 새까를 피운 곳으로 기억된다. 1976년 이후에는 관악으로 이주해 단과대학 중심제의 특수학교에서 전체 서울대만의 단과대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술대학 동창회의 발족은 기록도 확실하지 않고 관산 밖으로 선배들에게 문의해 봐도 아는 분이 없고 1946년 개교 이래 6·25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동문들이 뿔뿔히 헤어져 더욱 그러하다. 다만 4·19 전후에 만들어 졌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다. 특히 미술대학 출신들은 개인주의가 관해하고 남의 간섭을 받기를

경우 96년에 1백4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뜻깊은 서울대학교 50주년 기념 미술대학 첫 동창회전을 서울대 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이 전시와 함께 김주홍(1인 장무극)으로 유명한 孔玉振(여사)의 해학적인 공예전은 다세대 학생들도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때의 전시회 수익금은 모교에 장학기금으로 위탁해 지금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998년 동창회지를 만들어 일한 소식지로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 오렌 자료수집으로 이루어진 동창회 명부를 발간해 그동안 공명해오면서 소식을 몰라 소원했던 동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2000년 「서울대학교와 재연」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전시회를 서울 사립미술관에서 3백7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해 성대하게 개최했다.

200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온라인전(ART-ON-LINE)은 현대의 미술전시 방법인 인터넷 전시의 장점과 기능성을 보다 보편적 문화 현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 전시회로, 지금도 홈페이지(snuart.com)로 열려 있어 여러 동문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2004년 5월에 있을 예정인 인터넷전은 현재 자료수집에 들어가 있으며 5월 하순에 전시기간을 1년으로 잡아 으름날 계획으로, 이번에는 미술 도록을 만들어 작품을 출판한 동문들의 주소록도 함께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

글 : 李儒子(55년 美大卒·예술원 회원)회장

■ 연혁

- 1974년~1986년 동창회 본격적인 업무 시작
- 1986년~1995년 회원명부 발간, 마포 총 동창회관 207호 입주
- 1995년 7월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미술대학 동창회전」
- 1996년 朴善漢·白文基·文學晉 동문 춘장상, 메달증장식 개회
- 1996년 孔玉振(일인 장무극)여사 초청공연 개최
- 1996년 미술대학 발전 기금 전달식
- 1998년 동창회지 발간
- 1999년 회원명부 발간
- 2000년 「서울대학교와 새 천년전」
- 2001년 10월 미술대학 인터넷 동문전 「ART-ON-LINE」 개최

약대동창회 李金器회장

신임 동창회장
이 비 남

기독교문회 簡榮錫회장

“젊은 동문의 참여 유도에 주력”

지난 2월 28일 열린 약대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에 李金器(59년 藥大卒·일동제약 회장·본회 부회장) 동문이 선출됐다. 이에李회장을 만나 동창회와 개인 사업에 관한 이야기 등을 물어보았다.

— 그동안 동창회 활동을 소개한다면.

「약대동창회는 1967년 설립돼 현재 회원수만 5천6백명에 이릅니다. 매년 5백만원 정도를 모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바둑대회, 볼커링 행사, 회보 발행, 교직원 간담을 통해 동문간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취미별 동호회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해외지부의 활동도 활발해 뉴욕과 도쿄지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동문들의 경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난해 우리 동문 가운데 5명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元嘉盛(77년卒) 동문이 대한약사회 회장에 당선되는 등 좋은 일이 많았죠. 특히 金 蓮(01년卒) 동문은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해 동창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 약대 동창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여성동문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지요. 약대 특성상 여성동문이 전체회원 가운데 3천2백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전공 단체와 달리 모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아주 좋습니다.」

— 신규사업개발로 바쁘실텐데.

「일동투시스와 휴먼위터(이온수기)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동창회 회장직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대동창회의 경우 기반이 잡혀있고 젊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나서는 할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잘 분별해 동창회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약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고등학교 1학년때 6·25전쟁이 일어났는데, 3년간의 전쟁으로 배려가 된 한국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무엇 하나 변변한게 없었어요. 특히 낮은 수준의 위생과 영양부족으로 환자가 많았지만 제대로 된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기술로 제대로 된 약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올 한 해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건강식품사업 분야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일입니다. 고품질의 이우식, 장수기 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생활에 이바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 모교 지원금을 늘리고 젊은 동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李회장은 60년 일동제약에 입사, 「아로나민골드 신화」의 주역으로 94년 대표이사에 오른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으로 손꼽힌다. 전분CEO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제약협회를 역임하기도 했으며 현재 한국광고주협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南)

“모교 복음화 사업에 역점 둘 터”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중에 모교 지원 특히 복음화에 많은 동문들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교 지원 사업을 위한 방안은.

「캠퍼스의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영원인 민족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3부 요인을 비롯한 대기업, 국영기업체의 간부와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엘리트의 산실인 모교를 복음화하는 것은 민족 복음화의 첫 단계로 더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모교 복음화 후원회를 설립했고 많은 동문들의 후원을 독려하고 있으며 저도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 법대 졸업 후 다시 신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부모님은 모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도 의사가 되길 기대하셨죠.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꿈을 갖고 법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사법고시에 실패하면서 방향을 전환했죠. 많은 재주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기에 이제껏 다른 곳에는 한눈 팔지 않고 직장일만 성실히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에너지 분야에서만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오랜 직장 생활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을 지키지 못했기에 앞으로 좋아하는 골프를 비롯해 여러 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할 계획이며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활동에 나서려고 준비중입니다.」

簡회장은 64년 한국전력에 입사해 코오롱종합기업 대표, 코오롱건설 전무,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이사·관리본부장·감사,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 등을 역임했다.

(亨)

지난 12월 8일 기독교문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에 簡榮錫(61년 法大卒·64년 商大卒·前한국지역난방기술 사장) 동문을 선임했다. 이에 簡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동문회 운영과 주요 활동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동안 제가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바빴는데 이제 퇴임을 하고 보니 봉사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아닌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문회장도 맡게 됐죠.」

— 동문회 소개를.

「회원이 약 7백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문들은 5백여 명 정도이지요. 현재 기독교는 수많은 종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단체와는 달리 우리 동문회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교파라는 점입니다. 여러 종파의 동문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우리 동문회는 다른 종교 단체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죠.」

동문회 회칙에 의하면 동문간에 친목 도모와 신앙심을 더욱 굳건히 하고 모교

동문기자 회제후

할머니도 이해하는 인터뷰 대야

TV 뉴스를 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어느 날은 싸우는 장면, 어느 날은 우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어느 날은 출연자의 생생한 말 한마디가 오래 오래 머릿속에 남는다. 그 만큼 생생한 인터뷰 하느냐는 뉴스 전체를 살릴 수 있다. 반면에 적절하지 못한 인터뷰는 뉴스 전체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채널을 돌리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매일 매일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야 하는 방송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항상 고민하게 마련이다. 기자나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 모두 베테랑이라면 문제가 조금 작아지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방송 인터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에서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 다른 문제가 생겨서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언제쯤 말을 끝낼까 생각하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질문을 한다. 「다시 한 번 말

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간략하게 핵심만!」 「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선생님, 방송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10초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한마디로 의의만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말이 안 되는데,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은 제가 쓰면 되니까 걱정 미시고 의의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 볼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연구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30분이 넘게 걸렸다. 10초 인터뷰를 하는데 말이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주 겪은 일이다. 물론 인터뷰 길이가 꼭 10초인 이유는 없다. 2~3초 정도로 짧게 할 수도 있고 뉴스 전체를 인터뷰로 대신할 수도 있다. 또 연구자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수백 페이지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말해 달라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안다. 연구 배경도 중요하고 가정보도 빠뜨릴 수 없는 데 다 짚라 버리고 한 마디로 그것도 10초 정도로 요약해 달라니 어찌 보면 말이 안 된다. 방송 뉴스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방송 뉴스에서 인터뷰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

安 英 寅

(88년 自然大卒)

SBS 편집부 기자



만 뉴스 전체를 인터뷰로 대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꽤 것은 과감하게 빼고 기자에게 말한 것은 과감하게 말하면 모든 내용을 자신이 다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핵심만 짧게 말하면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촬영 도중 심수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수고도 크게 덜 수 있다.

둘째,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라.

인터뷰 할 때 또 한 가지 고민거리는 최근 연구 결과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어려워져서 일반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

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연구자와 시청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말을 하는 사람은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 용어까지 사용해 말을 한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뭔가 정확하게 말한 것 같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마저 든다. 하지만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시청자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들어보자.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방법은 기존의 lithography 방법과 결합하여 기존 상에서 patterning이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방법은 $0.5\mu\text{m}$의 분해능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0.1\mu\text{m}$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대체 무슨 소리가?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TV 뉴스를 보는 사람은 절대 다수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중학생도 있고 할머니도 있다. 특히 TV 뉴스를 집중해서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방송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당신이 아는 것을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 아이슈타인의 말이다.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나 시청자에게 뉴스를 전하는 사람 모두가 되새겨볼 말이 아닌 가 싶다.

법 앞에 만인이 불평등한 나라

형사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양형의 이유」를 설명한다.

형량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얼마인데 어떻게 오늘과 같은 형량이 결정되었는지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51조는 「죄를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하단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 53조는 법률에 명시된 죄의 감경사유 외에도 범죄의 정황에 착각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 가볍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酌量減輕」이라고 한다.

수많은 재판을 만나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조문들이 「자의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학창시절 습득한 지식에 금이 갔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감경 사유 가운데는 대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크게 부추기고 있는 점」이 들어간다. 물론, 정치인이나 공무원도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추겨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른 조건들이 자동적으로 참조된다. 「오랜 기간 나라에 봉사해온 점,」 「재판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돼 처벌의 효과가 있는 점, 등등. 봉사할 기회가 없

었던, 재판을 받으면 실추될 만한 명예가 없는 일반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지난해 2월 서울신문(당시 대한매일)은 국민의 정부 5년간의 주요 뇌물수수나 알선수조 사건 1백건에 대한 판결을 분석해본 적이 있다.

범인이 유죄를 인정한 사건은 모두 94건. 이 가운데 무려 68명(72.3%)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형소심사 제류 중이었던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형량이 선고됐으나 대부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심형을 받고 복역하던 인사들에 게도 사면복권이 가대라고 있었다.

「피고의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고 당시 한 판사에게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뇌물을 받은 죄밖에 지니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하면 처벌의 강경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솔직히 심수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논리라면 「재수없이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는 음주운전자들은, 혹은 사소한 법규위반자들은 어떻게 법이 심판할 수 있겠는가.

올해 3월, 서울신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6대 총선 사법 재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냈다. 16대 당선자가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55명, 18명이었던 15대 때보다 3배정

洪 志 政

(01년 人文大卒)

서울신문 체육부 기자



도 늘었다. 그런데 16대에서는 38.8%인 7명이 의원직을 잃은 반면 16대에서는 12명(21.8%)이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를 선고받아 그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1심에서는 당선무효율이 38.3%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17.7%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법원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법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됐지만 실효가 없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 대법원에서는 부패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등 여러 면에서 엄중한 태도를 보이대라고 하고 있다. 최근 한창 주가를 올렸던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관련,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나타나

고 있다.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좌우를 둘러보는 입장이 부패 척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상태다.

범이 감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한 것이 아니라, 감자나 약자 모두에게 공정한, 나아가서는 감자에게는 엄하고 약자는 배려하는, 그런 법률을 가졌으면 한다. 그 단초가 이제 서서히 보이겠지 같다.

P.S.

「너, TV에 나왔더라!」

지난 2년 가량, 최강자 게임부터 대박송금 특검을 거쳐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소원했던 친구들에게서 그런 인사전화가 톱속, 땀에도 걸려왔다.

방송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가 막대한 차림도 아니고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세수도 안하고 뽕한 눈에 단발 양복인, 그런 모습으로 TV 화면에 부딪히 금장했다.

회면 속에서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앞에서, 앞에서 혹은 뒤에서 한마디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표정은 일그러질 때가 많다. 멘트는 없다. 다른 기자들에게 말리고 제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비평과 고한악이 전파를 뿜은 것이다.

서초동을 떠난 지 3개월째, 일부전 회가 권력요인 아니냐고 해서 섭섭하지는 않다. 잔잔한 기쁨이나 성취감보다는 거대한 실망과 좌절을 많이 느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계속부로 동지들을 옮겨 기사생활 「재2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다.

모교 소식

“현실의 다양성을 존중하라”

鄭총장, 2004학년도 입학식서 당부



모교(총장 鄭雲峯)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振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鄭雲峯총장, 鄭明熙부총장 등 1백여 명의 교내 인사와 신입생,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金宇哲교부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자연대 생명과학부 조준희 교이 대표로 신입생 전서를 했다. 鄭雲峯총장은 “식사를 통해 ‘그동안 세계적인 시야를 갖춘 폭넓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역설하며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이웃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의식을 교육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고 ‘신입생 여러분도 겸허하게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현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대하인 본연의 자세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음대 성악과 金顯熙교수가 축가를 부르며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했다.

한편 올해는 등록조기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4전1백93명 모집에(정원의 포함) 4천84명이 등록해 97.4%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는 두 차례의 추가등록을 거친 결과로 지난해 96%보다 1.4% 높아진 것이다. 단과대별로는 공대와 자연대가 각각 96%, 95%로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률을 보여 1백% 등록을 기록한 법대, 경영대와 대비를 이뤘다. 반면, 지난해 95.2%의 등록률을 보였던 농생대는 2%정도 상승한 97%의 등록률을 보였다.

“비행체 특화연구센터” 개소

국방부서 1백억원 지원받아



모교는 지난 2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산공학관에서 국방과학기술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가 지원하는 비행체 특화연구센터(소장 金承勲·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개소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鄭雲峯총장을 비롯해 국방부, 국내외 항공우주 산업체, 연구소 및 학계 인사 2백여 명이 참가했다.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는 국방부의 위촉을 받아 21세기 항공우주 분야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모교 기계항공공학부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2백여 명의 국내 항공우주학계 연구진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센터로 국내 비행체 기술의 심도 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특화연구센터는 총 19개의 분야별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국방부로부터 2004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백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4개의 연구팀으로 운영되는 특화연구센터는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계획이며, 국내 정보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초고속 컴퓨팅 기술을 항공기 개발에 적극 활용을 개발과정을 단순시키고, 전문인력 양상에도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亨)

수리과학부 池東杓교수

美공군 연구재단 지원받기로

모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池東杓(68년 工大卒)교수가 미국 공군 산하의 연구재단으로부터 2년간 7만5천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池교수는 2004년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 연구에 5만 달러, 2005년 ‘양자 오류 보정’ 연구에 2만5천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지난 2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달 중순쯤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

연구비를 지원하는美공군

산하 연구재단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내 수학자가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자역학을 이용한 정보처리나 계산은 현재 컴퓨터 수준의 초소형화를 획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로써,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 연구경면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의공학교실 閔丙九교수팀

심장마비 응급구조장치 개발

모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閔丙九(65년 工大卒)교수팀은 최근 세계 최초로 심장마비 환자에게 몸 밖에서 심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생명구조 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응급 구조현장에서 즉석으로 환자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몸 밖에서 산소와 혈액을 자동으로 순환시켜주는 인공의 인공배·심장이다. 이로써 가슴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도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박동형 생명구조장치(TPLS)’로 불리는 이 장치는 환자의 몸을 수술로 찢지 않고 주사기를 찌듯 혈관에 연결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5분여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례적으로 이 장비에 대해 정식 허가에 앞서 응급구조 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수채용 심사 개선안 확정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높여

모교는 교수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채용 후보의 연구실적 심사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중 2명 이상을 학과 인사로 만드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심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 후보자의 연구실적 심사위원은 3명으로 이중 1명 이상을 학과 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3명의 평가가 5단계 등급에서 3등급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심사위원 2명을 추가로 지명해 평가하게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용 후보자들이 총괄 연구업적과 최근 3년 내의 연구 실적을 제출, 5명의 심사위원에게 평가받고 심사위원들 1~5점까지 점수를 주되 이중 최고·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점수 평균치로 연구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鄭雲燦총장, 美國 에일대 방문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해

모교 鄭雲燦총장은 지난 3월 31일 학문의 진흥 높이고 제학생들의 국제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美國 에일대와의 협력분장을 비롯한 교내 인사들과 함께 에일대를 방문,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교는 학술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실무자간에 구체적인 시행합의를 마치고 곧 학생 교환을 통해 제1차 수업, 어학 연수 등을 각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글 모교는 이번 에일대와의 학술교류협정을 계기로 메이비리크 대학교에 협력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 연수 프로그램

중국영기업경영자 23명 참여

모교는 지난 3월 19일 중국 광둥성 사오관(韶關) 현 강그룹 쑤더신(曾德新), 광둥성 항문 그룹 양원성(楊源成) 등 21개 주요 대형 국유기업의 최고경영자(CEO) 23명이 20일부터 6주간 모교 최고경영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기간동안 모교 국제대학원, 경영대, 공대, 수의대의 교수 20명과 한국기업 경영자(강사로 나서며 '글로벌 경영 전략' '서비스 마케팅' '사이버스페이스와 웹상: 디지털 시대와 경영환경' 등 10여 개의 '자본주의 특장'에 관한 강제가 개설된다.

모교 측은 '이번 연수단은 지금까지 광둥성이 파견한 국유기업 해외연수단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이례적으로, 최고위층이 참여한다'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MBC 孫石熙나운서 초청

토론회에 관한 강의 펼쳐

모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좋은 수업 만들기' 학생단은 지난 3월 22일 MBC 孫石熙나운서를 초청해 모교 근대대학로 1백주년 기념관에서 모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의를 가졌다.

孫나운서는 강의를 통해 "오랫동안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지지체 등 특정 집단에만 종속하는 이념화(카타르시스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점을 느꼈다"며 "그동안 토론 사회자로 진행해오면서 이런 경향에도 반항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토론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강의는 1천여 명의 재학생이 몰리는 등 성황을 보였으며 MBC 쪽서 FM '손석희의 사선집중'을 진행 중인 孫나운서가 모교 강단에 서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李)

청년 교수 프로필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15명이 지난 2월 27일 정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가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李重浩교수·철학

62년 文理大學, 국립대안대학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후 중국과 한국의 유학자사본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우리 나라 학계 발전과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모교 동아문화연구소장, 모교 인문대학 교무부장·철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지구환경과학

61년 文理大學,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 석·박사, 獨逸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후, 광물학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국 광물학회회장, 모교 광물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鄭秀浩교수·재료공학

61년 工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학위, 獨逸Aachen공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후, '결정학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모교 교육부제재작장·공대 교무학장·부기재공공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黃承浩교수·신소재공학

61년 農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농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후, 섬유군 총생물화학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모교 농업생물학과에 입학과정·부속 수목원장·부속연습장 등을 역임했다.



朴承浩교수·디자인학

61년 美大卒, 74년 모교 조교수로 임용후, 디자인교육의 체계정립과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인더스티리얼디자인학회(KSID)의 정립회원·회장, 한국디자인법안단체 회장, 모교 미술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의학

63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후, 안과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모교 의학과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안과 과장 등을 역임했다.



李勝浩교수·치의학

61년 齒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사,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후, 구강내과학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미국UCLA 치과대학 방문교수, WIIO치의학 교육심의위원, 모교 치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朴承浩교수·국어국문학

61년 文理大學,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임용후, 84년 인문대 국문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한국현대문학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黃承浩교수·생명과학

61년 文理大學,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수료한 후, 美프린스턴대에서 이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후, 미생물학전학 및 바이러스학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李重浩교수·응용화학

62년 工大卒, 美미네소타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후, 반응공학 및 공정제어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모교 공학도서관장·교무처장·평민학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이다.



金承浩교수·농경제사학

64년 農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농학 석사, 美캘리포니아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후, 농업경제와 에너지 경제발전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文在福교수·생물자원과학

64년 農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잡업 석사, 양잠 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후, 섬유군총생물화학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농촌진흥청 참사관총괄임원연구관, 모교 생물자원과학부장 등을 역임했다.



嚴承浩교수·조소

64년 美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후, 조각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獨逸베를린예술대 연구교수, 서울시 문화와 심의위원, 김세중 문화재단 이사, 모교 미대 조형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치의학

61년 齒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사,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후, 치과보철학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회장, 아시아치과보철학회회장, 모교 치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李勝浩교수·보건학

62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美미시간대학에서 인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후, 보건연구학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인구학회 회장, 가족계획연구원 부장·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가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연구소

한국치과원로학수회 吳應瑞회장

조부·부친·조카 등 4代에 걸쳐 15명이 동문

남동생·차남도 치의학 발전 위해 헌신



왼 표시 앞줄 吳應瑞동문, 뒷줄 오른쪽부터 吳應瑞·吳有愛·吳聖鎮동문.

만 65세 이상의 치과분야 원로들의 모임인 「한국치과원로학수회」 회원 수는 20여 명에 불과하지만 모두 치과의사협회장, 치대 학장 등을 역임하고 치의학 발전에 헌신한 일등공신들이다. 올해 치과원로학수회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치과 진료센터를 개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吳應瑞(47년 齒大專門部卒)동문은 이처럼 평생을 국내 치의학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 이북 실태민과 미국 교포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평양 출신인 吳應瑞동문은 문장에 조예가 깊었던 조부 故 吳應三(11년 法學校卒·前평양상공회의소 부회장)동문의 영향을 받아 일본 명치내 법학전문분야에 합력했으나 당시 일본 공습이 심해 홀로 서울로 유학을 와 모교 치대에 들어갔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남동생 吳應煥(59년 齒大卒·美 뉴욕 치과 전문)동문과 吳應瑞동문의 차남 吳聖鎮(77년 齒大卒·예치과 대표원장)동문은 현재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吳應瑞동문은 졸업 후 구급차 한 대를 Dental Clinic Car로 개조해 각 지역의

부의촌을 돌아다니며 무료진료를 펼쳤으며, 말레이시아에서 6년간 한자를 돌보기도 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민, 현재 뉴욕에서 치과의사를 하며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吳應瑞동문이 중학교 시절부터 유도선수로 활약했듯 차남 吳聖鎮동문은 고등학교 시절 축구부 주장이었으며, 대학시절에는 단과대학 체육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아들의 원래 꿈은 공학도였으나 제가 좀 설득을 했죠. 졸업 후 생계를 위해 잠시 명문대에서 치과개업을 했을 뿐 평생 사회발전을 위해 뛰다보니 치과의사로서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아들이 제 뜻을 알아준 것 같아요. 치과개업을 할 당시 아들과 축구부 단원들이 매일 우리 집에 놀러오면서 제 생활이 부러웠는지 고스란히 보고 치대를 지원하여 대부분 한격을 하더군요. 고교시절부터 죽마고우였던 친구 4명과 다시 의가부투해 종합치과병원인 예치과를 개업, 현재 전국에 52개의 예치과 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吳應瑞동문이 자연스레 모교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가족 중 서울대를 거처간 동문들이 많기 때문. 부친 故 吳昌杰(27년 京城法專卒)동문을 비롯해 조부 吳應三동문의 형제인 종조부 故 吳永龍(10년 水原農林學校卒·前진도·곡성·고흥군수)·故 吳德七(25년 京城醫專卒·前평양 중앙병원장)동문, 吳永龍동문의 아들인 종숙 故 吳允杰(26년 京城法專

卒)동문과 吳德七동문의 사위인 종고모부 尹定熙(37년 京城藥專卒·前자선당 제약 사장)동문이 모교를 졸업했다.

또 지금도 부자지간처럼 지내고 있는 종고모부 尹定熙동문의 아들 尹鴻植(60년 師大卒·모교 천문학과 명예교수)·尹鴻基(64년 醫大卒·前美 뉴욕의대 교수)동문과 사위 吳有愛(64년 醫大卒·강릉병원 산부인과 과장)·金裕貞(74년 齒大卒·안상규&김유진치과 원장)동문을 비롯해 吳允杰동문의 손주이자 吳應瑞동문의 조카인 재종질 朱龍宰(64년 農大卒·건국대 농대 학장)동문과 재종질녀 朱璵子(73년 美大卒)동문에 이르기까지 서 울대 동문 가족의 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6·25전쟁 후 우리 가족을 친자식처럼 아껴주고, 보살펴준 고모부(尹定熙동문)는 순수한 국내 자본으로 설립한 자선단체약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설립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큰 몫을 한 분」이라며 지금도 매일같이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곤 한다고.

한편 吳應瑞동문은 안정적인 치과개업 의뢰서 넘쳐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종조부

故 吳永龍(10년 水原農林學校卒)
故 吳德七(25년 京城醫專卒)

조부

故 吳應三(11년 法學校卒)

종숙

故 吳允杰(26년 京城法專卒)

부친

故 吳昌杰(27년 京城法專卒)

종고모부

尹定熙(37년 京城藥專卒)

재종

尹鴻植(60년 師大卒)

尹鴻基(64년 醫大卒)

재종 매부

吳有愛(64년 醫大卒)

金裕貞(74년 齒大卒)

남동생

吳應煥(59년 齒大卒)

차남

吳聖鎮(77년 齒大卒)

재종질

朱龍宰(64년 農大卒)

재종질녀

朱璵子(73년 美大卒)

그가 이들 마다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일본 식민지 시절, 대학 동기들과 함께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독립의 그 날이 오면 덕수궁에서 재회할 것과 국내 치의학 발전을 위해 힘을 바치자고 눈물로 결의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국내 치무행정 기조를 확립하며 국립의료원 사무총장으로 활약하기도 한 吳應瑞동문은 체육 분야에서도 유도와 각종 구기 선수들의 후배 양성에 힘쓰며 몬트리올과 LA 올림픽 대회에 감독으로 출전, 우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이산가족 재회운동에 앞장서며 재미 교포들의 언어 장벽과 열악한 의료 시설 개선에 대해 한국의료원을 설립했으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재미 교포들을 단결시키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

「친구들과 굳게 결의한 약속을 지금까지 간직하다보니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吳應瑞동문, 오늘도 그는 45년 무사고 운전 실력으로 다음날 있을 치과모임 준비를 위해 바쁜 길을 재촉한다. (表)

자연보호중앙협의회 李權昕회장

화제의 동문

사제 학가 金寅中동문

“식용유 한 스푼 정화에 물 2천ℓ” 물 보호에 남은 인생 ‘울인’

‘삼투하는데 사용한 물을 나중에 자신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머리를 샴푸로 감잖아요? 자연은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눈앞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으니 딱할 노릇입니다.’

자연보호중앙협의회 (www.knccn.org·이하 자보협) 사무실에서 만난 李權昕(61년 齒大卒·모교 치대 명예교수)회장의 일갈이다.李회장은 지난 연말 자보협 정기총회에서 7대 회장에 취임 후 불야성기 문동 등 자연보호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보협은 1977년 설립돼 매년 환경공무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15회에 걸친 ‘자보협 대 종합학술조사’, ‘산림내 취사금지’, ‘一山 一문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3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李동문이 韓北협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러나 환경에 대한 관심은 74년 유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유학시절 물을 사먹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 없이 휘발유 값과 똑같은 것을 보고 두 번 놀랐죠. “우리 나라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구나” 싶었지요”

이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모교 치대교수로 봉직하면서 환경저의 자원위원을 맡아 조용히 환경운동을 실천해 오다가 당시 생물학과 李仁走(60년 文理大卒·물리대대장 겸사위원장)교수의 권유로 자보협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가 자연보호 활동 가운데 유독 물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의 장광철학의 관련이 깊다. 생리학을 가르쳤던 그로서는 물이 몸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누구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물은 독성이 작은 용매로서 물질운반은 물론 해독작용,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의 약 75%가 물로 구성돼 있고 혈액의 80%가 물로 돼 있다는 것을 볼 때 물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물 보호는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기름용기는 휴지로 닦아내고 실거지하기, 샴푸 안 쓰기, 음식국물 버리기 등 버리기 등 조금만 신경을 써서 실천하면 수질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식용유 한 스푼은 2천ℓ의 물, 산란 우유 한 컵은 3천ℓ의 물, 라면 국물 1컵은 7백50ℓ의 물이 정화하는데 필요 합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이런 물 낭비, 오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후손에게 깨끗한 물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李회장은 앞으로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문제’는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환경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에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환경보존의 실천의지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연락처: 757-0008) (南)

전시회 수익금 소외계층에 기증 “화폭에 번치 않은 진리 담고파”



『VERITAS LUX MEA - 진리는 나의 빛』이 밝은 모교의 장학장신이자 우리 수도원의 기르점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번치 않는 것처럼 저는 그림을 통해 번치 않는 진리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재봉 화가이자 신부인 金寅中(63년 美大卒) 동문이 화가 인생 30년을 맞아 올해 전세계 8개국에서 9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파리 전시회에 이어 벨기에, 한국, 일본, 폴란드, 스위스, 콜롬비아, 이탈리아 등지를 돌며 전시회를 갖는다.

그 말한으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金동문의 종교에 대한 진리와 미의 추구가 담긴 작품전이 열려 세인들에게 그의 유화 세계를 선보였다. 밝으면서도 몽환적이며 어둠이 많고 마치 수채화에도 같은 그의 작품들은 빨강·노랑·파랑 등 강렬한 3원색을 써서 밝고 환한 빛의 느낌을 안겨주는 추상화들이다. 전시회 수익금 전액인 8천5백여 만원은 ‘우리 이웃 네트워크’에 소

외된 이웃들에게 사용하겠다고 기증했으며 지난 2000년, 2002년에도 국내 전시회를 통해 1억2천만원, 7천만원의 기탁하는 등 고국에를 발원해왔다.

사제이자 화가로서 독특한 길을 걷고 있는 金동문은 1969년 유학을 떠나 스위스 프리부르그에서 막노동 등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면서 어렵게 미술사학을 공부했다. 사실 미술 공부보다는 신학 수업을 더 열심히 들은 그는 한 신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제 서품을 받고 1975년 파리 성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가 현재까지 수사신부로 활동하고 있다.

5남3녀의 장남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던 그가 미술을 전공한 것부터 집안과 큰 반대에 부딪쳐야만 했는데 또 사제의 길을 걷고 있으니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약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金동문은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란 틀에 얽매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같아 자신의 그림 세계가 험지만은 않았던 결과의 산물임을 암시했다.

현재 그의 작품들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를 장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프랑스 에비앙레성당 등에 설치돼 있다. 또 직접 디자인한 미사 제의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金동문은 동문들에게 ‘영재란 세상을 아끼는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출세 지향의 사고가 아닌 영연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고 말한다. 그는 또 ‘흔히 진리의 상이달아 대이라고들 하는데,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리의 상이 달이라고 여기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

Noblesse Oblige

부엌 한 칸에서 긴 모자를 쓰고 주방장 복장을 한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앞 뒤를 만만 한 주걱으로 발걸음 달아오를 때복이 휘이 휘이 찼고 있다. 이윽고 들리는 소리. ‘사장님, 아들이 기다리는데요!’ 잠시 후 모자를 쓴 사장님과 신사 복장을 한 직원들이 정성껏 정예우들과 함께 매를달콤한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놀부 보름, 놀부 부대찌개, 놀부 솔뚥쥬 삼겹살, 놀부집, 놀부 율호 오리」로 유명한 (주)놀부 金順辰(ACAD·1기 AMFR)사장은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을 이끌어 매 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정기적으로 장예시실을 방문하여 사랑을 실천해왔다.

3백60여 개의 가맹점, 연 매출 1천억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의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기까지 金동문은 이 겪었을 어려움도 대단했을 터. (이)



(주)놀부 金順辰사장

음식 한 그릇에 사랑 한 가득 담아
매주 어려운 이웃·복지관에 제공

되던 마음 편히 지내도 되련만 金동문은 「놀부」를 알아주는 고객이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주신 사랑을 이제는 주위 사람들

과 나누며 살고 싶다」

고 말한다.

그의 성공신화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강연요청이 쇄도했고, 그에게 받은 강연료를 한 톨 한 톨 모아 놀부장학회를 설립해 직원 자녀와 대학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놀부 외식노련한 상품모를 통해 외식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순천향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한 金동문은 그러나 처음부터 탄탄대로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다.

「시는 제 너무 힘들어 중학교를 중퇴하고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서울로 상경해 식당을 하면 밥은 굶지 않았고

생각했어요. 세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찾은 아이템이 바로 보쌈이었어요. 법대로 보쌈요리를 개발해 고기와 김치 찹쌀을 따로 제공하고, 냉면 그릇에 시원한 된장국 한 가득 곁들였죠」 얼마 후 밀려드는 손님에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 작은 식당에 막노동하는 분들이 들르곤 했는데, 소주 한잔씩 서비스를 했더니 작은 소주 한 잔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 자주 찾아오시더군요. 그러한 인간적인 나만의情有 있었기에 지금의 놀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金동문은 자신을 「흔들리며 피는 꽃」에 비유한다.

「가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시구를 떠올려요. 정말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는 가시밭길 같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한없이 흔들리고 비에 젖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힘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리라 믿어요. 인생도 그 러하죠」 (李)

21세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의 선두주자

신속·정확한 심사로 지식기반 경제 뒷받침

글 : 崔成奎(90년工大卒)원동기계심사담당관실 서기관

이런 일 합니다

⑥ 특허청

필자가 기술고시에 합격해 95년부터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요즘도 동문들을 만나면 「특허청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고 있다. 사실 필자도 공무원으로서 특허청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특허청은 막연히 특허심사를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을 정도이니 그 당시에는 동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특허청이라는 기관의 명칭조차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확산과 이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의 주변을 확충시키기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확산과 특허청의 위상이 상당히 제고됐고 여저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심식되고 요즘은 물론 선두배들로부터 특허청 심사관 특별채용에 관한 문의나 특허권에 관한 자문요청이 많아 그따위다 새삼 특허청 심사관으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특히 얼마전 실시된 특허청 5급 심사관 특별채용시험에는 38명 모집에 6백68명이 응시해 평균 17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합격자 전원에게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으로서의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 및 R&D투자 기피로 인한 이공계 고급인력 취업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공계 출신인 필자로서는 다소 씁쓸한 생각이 든다.

IMF이후 우리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조를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그간 꾸준히 심사관을 증원해왔고 특히 올해부터 2007년까지 총 5백명의 대규모 특허심사인력 증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에는 신기술 개발과 연관되는 특허출원이 12.1%로 대폭 증가하는 등 총 30만5천건의 지식재산권이 출원돼 세계 4위 지식재산권 출원국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세계 4위 출원국으로 도약

이는 미래의 확실한 성장동력 부재라는 우리 경제에 대한 일부의 비관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경제」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기까지 우리 특허청의 역할은 더욱 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특허법은 모직물 공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고자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1474년 제정됐고, 이 법에 의해 갈릴레오의 양자관 개용 기계에 관한 특허권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 특허법의 모태는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1624~1852)로서 이 조에 의해 오늘날 미국 특허법의 대원칙인 선발명주의가 도입됐고, 특허권에 대해 14년의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 오늘날의 특허법이 유사한 체계가 등장하게 됐다. 이는 영국에서 방직기, 증기기관 등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근대적 발명품들이 탄생하는 중요한 제도적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1790년에 이미 전문 7조의 연방특허법이 공포된 이후 1836년 특허청이 독립 정부기관으로 설치됐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 18년(1885년) 일본 최초의 특허법인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돼 그 공포일인 4월 18일을 「발명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메이지 32년(1899년)에는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 가입,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등 일찍이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토양임을 인식하고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나라에는 특허제도가 매우 늦게 도입됐다. 근한말 1908년 체결

된 한국에 있어서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미일조약」에 의한 한국특허법이 시행된 바 있으나,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 이 한국특허법은 폐지돼 일본 특허법이 차용돼 시행됐고, 8·15해방 후 미군정 청령 재외조에 의해 1946년 10월 5일 실질적인 우리 나라 최초의 특허법인인 소위 「1946년 특허법」이 제정됐으며 특허심사 담당기구로 특허원이 창설됐다. 1960년 군사정변 후 시작된 국방령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1961년 12월 31일 「1946년 특허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의 3개 단행법으로 분리돼 제정·공포됐으며, 1963년 3월 5일 상표법이 제정됨으로써 특허법은 현재의 지식재산권 4법으로 분리된 법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후 1973년의 전문개정 등 수차례에 걸친 지식재산권 4법의 개정과 정비, 1979년 세계 지식소유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가입,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특허제도로서의 골격을 가진 특허법 체계를 갖추게 됐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술의 조속한 권리와 및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실용신안 무심사선등록제도와 기술협력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심사조직, 선진국 수준 이상

특허심사조직 측면에서는 1949년 상공부 외국으로 특허국(4개과)이 신설된 이후 1977년 3월 12일 특허청이 개칭되면서 심사관 및 항고심판소가 신설됐고, 특허심판복소수에 관한 대법원의 단심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998년 특허심판원이 설치됐다. 현재는 1원(특허심판원), 1소(서울사무소), 5국(발명정책국, 기계금속심사

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상표의장심사국), 2관(기획관리관, 정보기획관), 7과, 41담당관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6백19명의 심사관을 포함한 총1천1백2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전문 특허심사기관으로서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허법의 정비 및 특허심사조직 확충의 결과 우리 특허청은 국제적으로 조속의 규모 및 심사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7년 9월 PCT총원(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제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돼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EPO(유럽특허청) 등 선진국 특허청과 함께 1999년 12월부터 PCT 국제제사(ISA) 및 국제예비심사(IPEA)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우리 나라 특허관의 무심사등록을 인정받았다고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PCT 국제특허출원 조사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특허청의 핵심 기능은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 및 권리 부여에 있다. 점진적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개발의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해 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 신속하고도 안정된 권리의 부여가 선행돼야 한다.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해 심사행정시스템을 확충하고 특허심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전문교육을 통해 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심사자료와를 신설해 특허심사의 상시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심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사기간 단축에 심혈 기울여

그밖에 20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



까지 총 5백여 명의 아공계 특허심사 인력증원이 진행중에 있으며, 심사 판단기준 실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상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5년 연료를 목표로 차세대 특허검색 전신시스템인 KIPON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아공에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첨단기술이나 이미 사업에 착수한 기술 등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속한 특허심판을 통해 관련 특허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2007년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24명의 심판관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능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 및 권리 부여와 함께 지식재산권 창출의 저변 확대와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또한 특허청의 중요한 기능이다. 과거 우리의 특허행정체는 특허, 실용신안, 의상, 상표 등 지식재산의 권리를 불완전 보호책에 의존하여 왔으며, 상대적으로 권리화된 지식자산을 활용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거나 기술정보의 집적과 분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등 지식자산을 활용하고 그 활용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지식재산의 창출로 유도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 역량이 다소 부족했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국가적으로 부를 창출해내는 산업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안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적극적인 활용과 제투자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90년대 후반부터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확대와 특허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창출의 저변 확대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발명자의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에 대한 직무발명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을 연평균 10~30%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직무발명제도 우수실시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방안 등 기업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백26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발명공과교실을 2006년까지 1백80개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확대 설치해 지역별 학생발명 교육의 거점으로 운용하고, 2005년 11월 국제특허연수회에 「지식재산교육교류의」를 건립해 상설 발명특허교육의 산실로 운영하는 등 학생발명품노무 양성

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특허기술지도(Patent Map)의 작성과 보급, 연구개발 착수전 산업재산권 진단서비스 실시를 통한 기술정보 및 특허개발전략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와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업종단체별 기술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각종 특허정보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기술 사업화와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협력 강화 및 제원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자금, 창업자금, 사업화자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으며, 우수발명품 박람회와 특허기술대전 등 유망발명품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사업화 및 인터넷 특허기술중개터를 개설하고 있다.

아파트도 대학교육 특허권을 민간에 이전해 사업화를 활성화

며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鄭泰昌(74년 法大卒)차장(1급)은 1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감사관, 에너지산업심의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생활산업국 국장을 거쳐 2002년 3월에 특허청 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산업자원부에서의 풍부한 산업정책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행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부터는 지식재산 업무혁신단을 구성해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자체 개편 및 심사관 운영체계 개선,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확대 설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등의 특허행정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李成宰(71년 商大卒)심판장(2급)은 1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을 거쳐 97년에 특허청 정보자료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청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후 산업자원부 감사관이 되고 이후 산업자원부 감사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취임감은 탁월한 강연강과 예리한



특허청 국장들이 특허기술심사 심의회를 하고 있다.

기 위해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대학이 모두 또는 위원중인 특허를 대학내 전담조직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수수료를 면제하고 전담조직이 보유한 특허기술평가에 따르는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1백40여 동문 핵심 역할 맡아

특허청에는 총 1천1백26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10%가 넘는 1백40여 명의 동문이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특별 채용된 박사급 심사관의 경우 동문이 약 20%를 차지하

는 분석력을 기초로 한 공정한 특허심판으로 청내외에 평판이 나 있으며 은화하고 다양한 실용으로 인해 상하에 인망이 두둑하다.

金昌垣(73년 文大卒)특허연수부장(2급)은 1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장, 석유정책과장, 전력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등 주로 국가 에너지공급 관련부서를 두루 거쳐 작년부터 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창출저변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사이버특허법 강사 개설과 특허연수일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특허연수원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특허제도를 철저히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金惠瓊(73년 藥大卒)화학심

《특허청 동문현황》

이름	출생년도	직책
鄭泰昌	74년 法大	차장
李成宰	71년 商大	심판장
金昌垣	73년 文大	특허연수부장
金惠瓊	73년 藥大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金湘雨	75년 京大	지원정책
姜昌澤	72년 工大	특허심판원 심판4부 심판장
李殷雨	77년 工大	특허심판원 심판5부 심판장
朴明雄	78년 京大	정보기획관
西門亨	70년 門大	특허심판원 심판관
金悅	77년 社會	특허심판원 심판관
朴永亨	75년 京大	특허심판원 심판관
朴鍾孝	81년 工大	심사조정과장
金麗安	82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李敏浩	79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李成雨	80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禹宗煥	85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孔敏浩	88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李永大	86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陳明燦	87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千世昌	89년 工大	정보기획담당관
韓慶奎	80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金延秀	82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吳興秀	87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高承進	88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申載範	87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全麗媛	90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徐乙洙	90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崔成圭	90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尹元吉	93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朴敏熙	92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田之憲	95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金東俊	94년 京大	정보기획담당관

*자명표로 표시된 자명표는 동문회 회원이 아닌 동문회 회원이 아니다.

하심판원에 姜昌澤(72년 工大卒)심판장, 朴明雄(78년 工大卒)심판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李殷雨(77년 工大卒)정보기획관이 선진국 특허청에서도 표준 모델로 삼을 만큼 그 우수성을 자랑하는 특허청 전신시스템의 유지·개발·보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과장급 동문으로는 西門亨(70년 文大卒)심판관, 金悅(77년 社會大卒)의정보3심사담당관, 朴永亨(75년 工大卒)정보기획심사담당관, 朴鍾孝(81년 工大卒)심사조정과장, 金麗安(82년 法大卒)정보기획담당관, 李敏浩(79년 工大卒)정보기획담당관, 禹宗煥(85년 法大卒)심사기획관, 孔敏浩(88년 農大卒)농림수산심사담당관, 陳明燦(87년 社會大卒)상표1심사담당관, 千世昌(89년 工大卒)정보기획담당관이 근무하고 있다.

그외에 韓慶奎(80년 藥大卒)서기관을 비롯해 12명의 동문이 서기관으로 과장을 보좌하고 있으며 1백10여 명의 많은 동문이 사무관으로 특허심사 등의 실무 맡고 있다.

1백40여 명의 특허청 동문들은 오늘날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탐과 열정으로 개발한 신기술이 조속히 권리화돼 산업발전과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동문들이 지식재산권과 특허청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건강을 저해한다

지방간, 1년 이상 금주해야

肝炎「전문의 장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대개는 자각 증상이 없다. 일부 질환에서 자각할 수 있는 증세와 대처방법 및 예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간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있는 경우는 무척 상복부에 둔통이 온다. 체중 조절, 약제 사용 금지, 당뇨 조절, 금주 등을 시행하면 점차 회복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염의 경우 술을 막고 난 뒤 급격히 피로가 오고 식욕 부진, 발열, 구토, 오른쪽 상복부 통증, 설사 등이 나타나면서 황달이 올 수도 있고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커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금주와 적극적인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담배맛, 입맛이 떨어지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여드름 같은 것이 나며 갑자기 눈에 피로가 와서 신문 읽기도 힘들어지는 등의 증세들이 있을 수 있다. C형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거나 모계 감염의 경우는 만성화 되는 경우가 많고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근래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으로 인한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의 경우도 표준체중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간경변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경변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부종, 복수, 간성혼수, 식도 위정맥류 출혈, 간암 등)들로 인해 당사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李敏浩
(73년 醫大卒)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러한 질환에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 간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간염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및 항염제의 지속적인 투여, 둘째 적절한 음주 습관 및 무절제한 약물 복용 금지, 셋째 과식을 피하고(특히 저녁식사는 적게 밥, 빵, 과일 등의 섭취를 줄인 소량의 식사), 적당한 운동을 하여 표준체중을 유지한다.

넉넉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진다(특히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간암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1년에 3~4회 정도의 신체검사(피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이상 소견이 나오면 간 전문의와 상담한다. 여성제 특히 만성 간질환자들은 각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가 가능한 초기 간경변증의 상태를 미리 찾아내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연락처 : 2290-8340)

나의 건강법

“오줌으로 만성피부질환 고쳐”

金 起 —

(54년 醫大卒)
단국대 의학박사



최근 요로법(오줌으로 하는 건강법)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신문·방송매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많은 나이(80세)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점과 오줌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화제거리가 된 모양이다.

필자가 요로법을 접한 것은 몸이 아프거나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1년 삼락원(장년퇴임 교직자들의 모임)에서 우연히 요로법 특강을 듣게 됐고, 평소 건강관리법에 관심이 많던 터라 요로법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후 일본에 있는 아들을 통해 요로법 관련 전자, 책들을 구해 연구하게 됐으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된 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특별하게 아픈 곳은 없었지만 무릎, 비름, 피부간성이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오줌을 마시고 바르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그 모든 피부질환이 깨끗하게 완치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교직생활 40년 동안 먹은 백작가루 때문에 목이 많이 상했는데 요로법을 하고 난 후부터 기침도 사라지고 10kg 정도 과체중이던 몸도 정상으로 되찾았다. 이 건강법을 실행에 옮긴 이후 한번도 병원을 찾은 적이 없다. 열에서 역경다고 말리던 안사람도 필자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몇 년 전부터 요로법에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데사 이 前수상, 미국의 존스 前대통령, 미국의 키신저 前국무장관, 일본의 후쿠다 前수상도 요로법을 실시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로법은 크게 음용법과 마사지로 나뉜다. 음용할 경우 아침의 오줌이 좋는데 그 이유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시는 양은 처음에는 아침 하루 한잔(2백ml)이 적당하나 개인의 체질, 질병상태에 따라 2~3잔 마셔도 좋다. 마시기 시작하면 중독하하지 말고 호전반응이 와도 참고 평생 마시는 것이 좋다. 마사지는 외상, 피부습진 등에 하는 것으로 5~6차례 비벼주면 된다. 피부질환 부위가 아니라도 얼굴, 목, 머리 부위를 주기적으로 마사지해주면 건강한 피부유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머리마사지를

통해 40대부터 하얗게 변했던 머리에 검은 머리카락이 돋기 시작했으며 대머리 정도도 막을 수 있었다.

오줌에는 2백여 종의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다. 그러나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없어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다. 필자가 1년지미 박사학위를 받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다. 요로법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14명의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결과 뚜렷하게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를 거뒀으며 대상자의 체중도 표준체중으로 변화하는 것이 과학적인 수치로 확증됐다.

그러나 요로법만하면 만사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이 또한 수많은 건강법중 한가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음식요법, 요가, 경기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생리학상 1백20세 이상 살 수 있다. 그전에 죽는 사람은 까불다가, 교만을 부리다가, 반칙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다. 건강장키키는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함을 명심하자. *요로법 관련서적 4월중 출간(이철나리)예정. (연락처 : 031-911-2370)

1 등 정

수 상

▲姜信沆(53년) 文理大卒·한국
어문교육연구회장) = 지난 3월
5일 연세대 루스체움에서 국내
어문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제10회 용재상을 받음.

▲金幸煥(52년) 文理大入·세종
문화재단 사
장) = 지난 3월
12일 세종문화
재단 세종홀에
서 한국음악평
론가 협회로부터
제12회 한국음악상을 받
음.

▲李金器(59년) 藥大卒·인종제
약 회장·문화
부회장) = 지난
3월 24일 한국
일본 승현클럽
에서 한국CEO
학회에서 수여하
는 제4회 한국CEO대상(중소기
업 부문)을 받음.

▲李萬烈(63년) 文理大卒·숙명
여대 명예교수·국사편찬위원회
= 지난 3월 17일 건국대 상하
기념도서관에서 제15회 상하대
상(학술·교육부문)을 받음.

▲金鍾光(68년) 工大卒·한국바
스프 회장) = 지난 3월 17일 서
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상
공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
훈장을 받음.

▲楊興準(69년) 工大卒·LG생명
과학 사장) = 지
난 2월 26일
「퀴놀론계 항균
제 캐타브르」로
2003년 최우수
IR52장영실
상인 대통령상을 받음. 또 27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제정한
제5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대
상을 받음.

▲李連雨(70년) 工大卒·LG화학
기술연구부장) = 지난 3월 9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8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받음.

▲李連雨(78년) 工大卒·모교 기
체항공공학부 교수) = 지난 3월
9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젊
은 공학인상을 받음.

▲愼昌宰(78년) 醫大卒·교보생
명 회장) = 지
난 3월 24일

한국일본 승현
클럽에서 한국
CEO학회에서 수
여하는 제4회
한국CEO대상(대기업 부문)을
받음.

▲方英柱(79년) 醫大卒·모교 내
과학교실 교수) = 지난 3월 8일
보령제약과 한국안연구재단이
공동 제정한 제3회 보령암학술
상 수상자에 선정됨.

▲崔錫敦(81년) 工大卒·한국항공
공무추진연구원 유도제어그룹장
= 지난 3월 11일 세계 최고 권위
의 인명사전 발행기관인 영국 국
제인명센터(IBC)가 뽑은 「2004
년 올해의 과학자」에 선정됨.

이동·선임

▲李時榮(59년) 文理大卒·前외
무부 차관·前
전주대 총장) =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
빙 교수에 위촉
됨 3월부터 강
의함. 또 세계유엔협회연맹
(WFUNA) 집행이사와 유네스
코 국제문화진흥기금(IFPC) 판
라이사에 임명됨.

▲蔡永福(59년) 文理大卒·前과
학기술부 장관) = 지난 3월 12
일 한양대 자연과학대학 석좌교
수에 위촉됨.

▲金宇哲(61년) 文理大卒·KBS
이사) = 지난 3월 19일 서울 여
의도호텔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제7대 회장에 취임함.

▲朴鍾圭(61년) 文理大卒·KSS
해운 교통) =
지난 3월 25일
대통령 직속기
구인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
원장에 위촉
됨.

▲宋相福(62년) 文理大卒·한양
대 석좌교수) =
지난 3월 4
일 국내 처음
으로 유네스코
세계 과학기술
문리위원회 위
원에 위촉됨.

▲丁奎白(62년) 法大卒·前국립
세무대 교수) =
지난 3월 1
일 신설된 중
지세무대학 학
장에 선임됨.

▲金大中(63년) 法大卒·조선일
보 이사기자) = 지난 3월 12일
조선일보 부사장 대우에 선임
됨.

▲金政起(63년) 法大卒·前방송
위원장·한국외
대 교수) = 지
난 3월 11일
서울 북동 방송
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
니케이션학회 창립총회에서 초
대 회장에 선출됨.

▲金鎮綱(64년) 文理大卒·前서
울경제신문 주
필·분보. 논설
위원) = 지난 3
월 29일 창간
한 인터넷 신문
「대일리안」 논
설위원에 선임됨.

주일 대사에 羅鍾一등문
14개 공관장 임명

지난 3월 5일 주일본 대사
에 羅鍾一(63년 文理大卒)·前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주캐
나다 대사에 任旻準(71년 文
理大卒)·前청와대 외교안보수
석비서관 등 14개 공관장에
동문이 임명됐다.

이번에 단행된 공관장 인사
는 다음과 같다.
△주인도 대사 崔靑鶴(73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외전
장) △주이집트 대사 崔勝浩
(70년 法大卒·前카자흐스탄
대사) △주리비아 대사 柳明
桓(70년 法大卒·이스라엘 대
사) △주나이지리아 대사 金
東源(73년 商大卒·前산업자원
부 자원정책실장) △주난아프

리카공화국 대사 金殷洙(75년
文理大卒·前주중 공사) △주
덴마크 대사 安孝承(71년 商
大卒·前주타자니아 대사) △
주뉴질랜드 대사 辛正承(75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아태
국장) △주포르투갈 대사 沈
允燾(77년 社會大卒·前외교통
상부 북미국장) △주불가리아
대사 鄭在植(71년 法大卒·前
주집바브레 대사) △주그리스
대사 鄭海文(76년 社會大卒·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주
소리랑카 대사 林載弘(76년
社會大卒·前외교통상부 기획
심의관) △주말디바도르 대사
秋淵坤(78년 社會大卒·前주폴
란드 대사) △주잠비아 대사

별시외정의 사무총장) = 지난 3월
9일 서울프리카호텔 객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서울특별시
외정의 사무총장에 취임함.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
인사관리자협
회) = 최 근
한국한자교육
연합회 상임고
문에 위촉됨.

▲金勳東(69년) 農大卒·수원에
총 회장) = 최
근 서울 화평 화
수회관에서 열
린 한국예총 경
기총회에서 감
사에 선출됨.

▲韓泰奎(71년) 法大卒·외교통
상부 본부대사) = 지난 3월 17
일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임명
됨.

▲秋俊錫(71년) 商大卒·부산항
만공사장에 임명됨.

▲辛成梧(64년) 法大卒·외교통
상부 본부대사) = 지난 3월 15
일 경남 양산시 영산대 자연진
공학부 교수에 임용됨.

▲卞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
모병위 행정원
장·세계컬스카
우트 아태지역
의장·분회 부
회장) = 최 근
사단법인 한국
아동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
5대 회장에 재선임됨.

▲劉承三(65년) 文理大卒·前대
한애일 사장·
세종대 겸임교
수) = 지난 3월
부터 한국과학
기술원(KAIST)
초빙교수에 임
용됨 「메스미디어와 과학
기술」을 강의함.

▲金寅東(67년) 行大院卒·서울특
수교육진흥원장

만광사 사장)=지난 3월 11일 부산해안포럼 회장에 선출됨.

▲崔允伯(73년) 醫大卒·윤산의 대 서울아산병원 교수=지난 2월 28일 아산재단 강릉 아산병원 원장에 임명됨.

▲姜成培(74년) 文理大卒·선문대 교수=지난 3월 10일 선문대 부총장에 취임함.

▲金貽煥(75년) 新大院卒·한국 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중앙대 겸임교수)=최근 한국광고주협회 정기총회에서 상근 부회장에 재선임됨.

▲金載一(76년) 經營大卒·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3월 6일 상명대에서 열린 한국마케팅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1년의 회장에 선출됨.

▲方榮玟(76년) 經營大卒·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지난 3월 17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 분석원장에 임명됨.

▲黃昌圭(76년) 工大卒·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지난 3월 4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제5대 회장에 선임됨.

▲權奇成(79년) 行大院卒·송실대 21세기 정경연구소장)=최근 세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에 임명됨.

▲羅鍾德(48기 AMP·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순천향대 명예교수)=지난 3월 21일 미국 골프지도자협회(US GTF) 한국협회 상임고문에 추대됨.

수)=지난 3월 21일 미국 골프지도자협회(US GTF) 한국협회 상임고문에 추대됨.

행사·출간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 사회포럼 회장=지난 3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경남대 宣峻英(62년 法大卒)석좌교수를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33회 특별강연회를 개최함.

▲尹鉉重(57년) 文理大卒·한국 언론인포럼 회장=지난 3월 17일 한국언론재단에서 THE DAILY FOCUS의 李煥行(58년) 鹿大卒)사명을 초청, 「무엇을 종합 일간지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제15회 언론인포럼을 개최함.

▲李升煥(59년) 法大卒·한국가스연맹 ICT2005 국제회의 조직위원장은=지난 3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LNG4 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함.

▲崔嘉準(59년) 法大卒·한국대중음악연구소 이사장=지난 3월 26~27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가수 데뷔 45주년을 맞아 「최희준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를 개최함.

▲金載姬(60년) 美大卒·한국여류화가회 회원)=지난 4월 11~18일(쿠퍼티노 Valico Fashion Park), 24~30일(시카고

Gallery Scent) 金銀淑(61년 美大卒·한국미협 회원)등문 등과 함께 한국화가전을 개최함.

▲李承宇(63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포럼장=지난 3월 9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청계천 유역 물순심포럼」을 개최함.

▲金明珍(65년) 高大卒·한국피아노두오협회 부회장=지난 3월 14일 금호아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趙煥姬(79년 高大卒·한양대 강사)등문, 비올리스트 金劍妍(92년 高大卒·연세대 강사)등문 등과 함께 「소리를 양상함」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함.

▲李但悅(67년) 高大卒·상신여대 교수·테너)=지난 3월 30일 평동성당 내 문화관(포스트홀)에서 全奉求(68년 高大卒·경원대 교수·바리톤)등문 등과 함께 「성악 앙상블 아벤트」를 개최함.

▲趙誠愛(68년) 美大卒·한국현대관화미술협회 회원)=지난 4월 2~11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2004년 서울관화미술제에 관화가 李貞林(77년 美大卒)·朴顯淑(79년 美大卒)·全慶姪(80년 美大卒)등문과 함께 작품을 출품함.

▲林吉鎮(69년) 工大卒·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KII 국제정책대학원 석좌교수)=지난 3월 9일 국제적 반부패 동향

과 네트워킹은 주제로 제2회 한국부패학회 국제회의를 개최함.

▲金玉玆(70년) 高大卒·한세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4월 4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리사아 샤프-페데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알렉산더 소비아트킨 교수와 함께 피아노 두오 리사이클을 갖고 모차르트, 슈만, 루트슬라프스키, 라벨 등의 작품을 선보임.

▲金潤澤(70년) 經大院卒·양천장학회 이사장=지난 2월 27일 이공계대학생을 위한 대상으로 제37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함.

▲吳効鎮(71년) 文理大卒·중앙대 교수=지난 3월 26일 한국언론재단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사진이 담긴 영상수필집 「개망초의 행복」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郭順華(76년 美大卒·경기대 교수)=지난 3월 10~16일 인사아트센터에서 「순화/별화」와 별화,이란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韓惠慈(79년) 美大卒·한국미협 회원·서양화가=지난 3월 17~23일 한국일보 백상기념관에서 다섯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李淑美(88년) 高大卒·명지대 강사)=오는 4월 17일 연산아트홀에서 李秀卿(88년 高大卒·서울모터스합창단 상임피아니스트)등문 등과 함께 바흐, 슈베르트,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연주회」를 개최한다.

▲安惠鮮(89년) 高大卒·중앙대 강사=지난 3월 1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클에서 피아노독주회를 열고 베토벤, 야나체크, 쇼팽 등의 작품을 선보임.

▲崔烈坤(6기) ACAD·한국교육심리학회 총연맹 회장=지난 3월 23일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한국지방교육자치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음.

▲李殷興(48기) ACAD·21세기 한국사회봉사회 이사장=지난 3월 9일 서울 흥은3동에 무료급식소 「백련자비원」을 개소함. (자원봉사 연락처 303-0024)

(정리=安興奎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회초를 밝힌 동문을 소개한다.

- ★장동훈(98년 工大卒)·윤정혜 씨=4월 17일 15시 30분.
- ★이강훈(96년 師大卒)·오수미 씨=4월 24일 14시.
- ★이동영(96년 自然大卒)·이유진 씨=4월 24일 15시 30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에서부터

<이사> 2003년 12월 24일 ~ 2004년 1월 19일 · 일반: 2003년 12월 31일 ~ 2004년 1월 18일>

평생회비

<이사 50만원>

▲강영주 상대회 ▲김유식 상대회
▲김해석 약대회 ▲정세호 공대회
▲고광석 법대회 ▲고원훈 공대회
▲구자영 공대회 ▲권익희 의대회
▲김동주 공대회 ▲김상원 농생회
▲김승규 법대회 ▲김영구 상대회
▲김윤재 상대회 ▲김재해 법대회
▲김종훈 공대회 ▲김지익 법대회
▲김진식 공대회 ▲김학원 법대회
▲김용복 법대회 ▲본익상 법대회
▲민계식 공대회 ▲박경희 생대회
▲박기삼 상대회 ▲박민태 공대회
▲박용국 행대회 ▲박용도 법대회
▲박인수 음대회 ▲박종현 법대회
▲방 현 배대회 ▲백영준 수의회
▲순수인 상대회 ▲송지오 공대회
▲신순철 의대회 ▲상우규 공대회
▲안희철 법대회 ▲유용선 공대회
▲박용국 사대회 ▲윤정철 의대회
▲이계관 약대회 ▲이광호 의대회
▲이기찬 공대회 ▲이선동 법대회
▲이수형 법대회 ▲이영두 사대회
▲이정상 상대회 ▲이종대 공대회
▲이종복 미대회 ▲이종삼 미대회
▲이종현 상대회 ▲이희조 문리회
▲인상선 법대회 ▲임영호 공대회
▲전영우 공대회 ▲정기근 치대회
▲정동주 상대회 ▲조대연 법대회
▲최계순 行院회 ▲표삼수 공대회
▲한정희 법대회 ▲허병하 상대회
▲현현록 법대회 ▲홍성구 농생회

<일반 20만원>

▲강병문 사대회 ▲강자숙 문리회
▲강성범 법대회 ▲강성복 수의회
▲강성원 사회회 ▲강승구 공대회
▲강승식 사대회 ▲강숙경 의대회
▲강승구 상대회 ▲강창구 AMP회

▲고현호 농생회 ▲곽수현 농생회
▲곽의종 약대회 ▲곽현희 치대회
▲구준희 사대회 ▲권순정 공대회
▲권영봉 공대회 ▲권오석 AIP회
▲귀경호 상대회 ▲김광진 농생회
▲김기락 의대회 ▲김기진 AIP회
▲김남용 ACAD회 ▲김동진 人院회
▲김 룬 자연회 ▲김병희 大醫院
▲김복성 의대회 ▲김상원 ACAD회
▲김석희 인문회 ▲김신기 AMP회
▲김선배 의대회 ▲김선희 음대회
▲김성주 자연회 ▲김성준 경영회
▲김성환 공대회 ▲김세기 문리회
▲김수경 치대회 ▲김영남 공대회
▲김영대 공대회 ▲김영복 농생회
▲김영철 AFB회 ▲김원근 사회회
▲김기수 상대회 ▲김용부 공대회
▲김임길 SGS회 ▲김임준 자연회
▲김유선 미대회 ▲김정현 AFB회
▲김정구 상대회 ▲김정구 농생회
▲김정기 자연회 ▲김정수 치대회
▲김종구 사대회 ▲김종철 상대회
▲김준희 사회회 ▲김준연 공대회
▲김창부 상대회 ▲김재중 치대회
▲김철배 상대회 ▲김철수 APC회
▲김철환 공대회 ▲김충현 공대회
▲김충한 ACAD회 ▲김태정 공대회
▲김하늬 농생회 ▲김홍기 인문회
▲김준수 문리회 ▲김홍근 공대회
▲김희주 치대회 ▲김희중 의대회
▲나병호 의대회 ▲남인순 공대회
▲남병재 간호회 ▲도문홍 의대회
▲도일규 문리회 ▲류기승 농생회
▲문명국 공대회 ▲문병수 공대회
▲문진호 공대회 ▲민경갑 미대회
▲민영문 법대회 ▲민화식 공대회
▲박진우 법대회 ▲박광호 공대회
▲박동섭 법대회 ▲박래선 APC회
▲박삼진 공대회 ▲박수현 미대회
▲박영길 공대회 ▲박영일 상대회
▲박영희 문리회 ▲박영호 공대회
▲박 용 사대회 ▲박인호 ACAD회

▲박재선 공대회 ▲박종철 문리회
▲박준수 법대회 ▲박준호 경영회
▲박해준 사회회 ▲박희금 APC회
▲방규원 공대회 ▲방진현 의대회
▲방근성 농생회 ▲배은경 음대회
▲배진직 치대회 ▲백남일 AMP회
▲백승중 치대회 ▲백영진 AMP회
▲변영일 상대회 ▲사광수 약대회
▲서광규 공대회 ▲서석호 법대회
▲서영배 AIP회 ▲석길근 사회회
▲석효경 공대회 ▲설용수 ACAD회
▲설희순 공대회 ▲성대선 AFB회
▲성대중 경영회 ▲순문자 문리회
▲순석원 공대회 ▲송희희 무대회
▲송원일 상대회 ▲송재준 공대회
▲송학찬 치대회 ▲신선조 경영회
▲신외법 사대회 ▲신재용 공대회
▲신종영 경영회 ▲신현준 AIP회
▲신희철 의대회 ▲안동란 공대회
▲안병근 AMP회 ▲안병만 법대회
▲안병재 공대회 ▲안수현 경영회
▲안승국 법대회 ▲안승수 AMP회
▲안중호 문리회 ▲안태환 공대회
▲안 훈 수의회 ▲양기용 사회회
▲양동환 상대회 ▲양준호 공대회
▲염도재 공대회 ▲임상호 AMP회
▲오병길 인문회 ▲오세용 공대회
▲오순태 AMP회 ▲오종환 농생회
▲오대식 인문회 ▲왕준용 사회회
▲왕성중 AMP회 ▲왕진현 行院회
▲위 회 AMP회 ▲유건호 자연회
▲유기환 치대회 ▲유 목 법대회
▲유재방 법대회 ▲유재한 사회회
▲윤복렬 사대회 ▲윤선에 음대회
▲윤승호 사회회 ▲윤정화 사회회
▲윤광화 상대회 ▲윤주학 사대회
▲윤진영 법대회 ▲윤홍철 치대회
▲윤병수 경영회 ▲이경환 공대회
▲이경희 사대회 ▲이근수 농생회
▲이기만 사회회 ▲이기영 사대회
▲이남인 大醫院 ▲이대봉 AMP회
▲이대연 농생회 ▲이덕표 공대회

▲이동우 문리회 ▲이동한 자연회
▲이동훈 AIP회 ▲이병중 사대회
▲이병하 미대회 ▲이봉준 AMP회
▲이상기 인문회 ▲이상민 법대회
▲이상인 AMP회 ▲이상준 경영회
▲이서현 음대회 ▲이서현 공대회
▲이성범 법대회 ▲이성우 문리회
▲이성호 공대회 ▲이수근 공대회
▲이승인 자연회 ▲이승구 농생회
▲이승규 AIP회 ▲이승은 치대회
▲이승환 문리회 ▲이영호 ACAD회
▲이용수 사회회 ▲이윤호 AMP회
▲이은경 공대회 ▲이인정 AMP회
▲이창우 문리회 ▲이창호 인문회
▲이재영 경영회 ▲이재현 자연회
▲이재정 공대회 ▲이정운 의대회
▲이정호 농생회 ▲이종교 자연회
▲이종구 의대회 ▲이종복 문리회
▲이종철 의대회 ▲이종하 AIP회
▲이주영 공대회 ▲이준오 AIP회
▲이준원 경영회 ▲이준원 AMP회
▲이진규 치대회 ▲이진수 수의회
▲이창현 치대회 ▲이창호 사회회
▲이태호 공대회 ▲이한은 음대회
▲이해중 공대회 ▲이현민 사대회
▲이형석 농생회 ▲이형진 의대회
▲이홍식 사대회 ▲임병훈 AIP회
▲임승찬 치대회 ▲임인준 문리회
▲임주환 공대회 ▲임정중 공대회
▲임 철 약대회 ▲임현진 문리회
▲임효서 문리회 ▲장소원 인문회
▲장순식 AMP회 ▲장인수 약대회
▲전광식 법대회 ▲전정희 음대회
▲전 준 미대회 ▲정관호 미대회
▲정구현 상대회 ▲정근화 사대회
▲정남기 ACAD회 ▲정남희 법대회
▲정병원 간호회 ▲정성창 치대회
▲정연용 공대회 ▲정연준 자연회
▲정영진 생활회 ▲정용근 공대회
▲정운용 문리회 ▲정 준 공대회
▲정진국 법대회 ▲정진용 치대회
▲정진호 농생회 ▲정전기 의대회

▲정태현 AIP회 ▲정홍술 상대회
▲정희경 자연회 ▲정희용 AIP회
▲조대환 법대회 ▲조명영 수의회
▲조미경 의대회 ▲조민선 치대회
▲조상래 공대회 ▲조상의 상대회
▲조성인 농생회 ▲조용준 공대회
▲조인식 인문회 ▲조해근 법대회
▲조현호 법대회 ▲주길동 공대회
▲주영준 공대회 ▲지원식 공대회
▲진준현 인문회 ▲지건원 의대회
▲차주환 문리회 ▲차준용 인문회
▲채상식 문리회 ▲채정자 문리회
▲현의영 공대회 ▲전정근 SGS회
▲최경하 AIP회 ▲최경하 AIC회
▲최 광 상대회 ▲최규선 상대회
▲최달우 공대회 ▲최복철 공대회
▲최순구 공대회 ▲최순중 치대회
▲최양근 치대회 ▲최영희 치대회
▲최왕인 AMP회 ▲최왕규 공대회
▲최정은 음대회 ▲최종은 의대회
▲최진석 保院회 ▲최충용 미대회
▲최하경 공대회 ▲최희동 공대회
▲추인호 사대회 ▲하계상 공대회
▲하영구 상대회 ▲한기택 법대회
▲한병소 치대회 ▲한성홍 사대회
▲한환근 공대회 ▲한 정 법대회
▲한태원 치대회 ▲하남섭 공대회
▲허성용 상대회 ▲허준정 문리회
▲홍성환 의대회 ▲홍승일 사회회
▲홍현식 치대회 ▲황덕규 공대회
▲황승기 사대회 ▲황정득 의대회
▲황준영 AMP회 ▲황철수 AMP회
▲황철중 의대회 ▲황형모 법대회

이 사

◇인문대학

▲나병식회

◇공과대학

▲강정환회 ▲고영주회 ▲고인석회

동창회별 입교

잡지형태로 바뀌 보관할 수 있었으면...

서울대총동창회로부터 필자의 이메일로 '동창회별 입교' 코너에 관한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필자는 사업상 경영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및 지도를 직접 준비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어 다른 동년배 친구들보다 커피터와 가깝게 지내는 편이라고 본다. 그리고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몇 번 글을 올린 바 있다. 내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이유는 우리 총동창회 홈페이지가 단지 서울대학교 및 동문들의 소식만 전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나라 각 방면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려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총동창회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필자는 서울대 농대 농화학과 및 대학원 농화학과를 졸업했고, 수이동생은 의대 간호학과와 보건대학원을 졸업했지만, 필자의 자식들은 한 명도 서울대학교에 진학시키지 못했다(서울 강박에서만 계속 주거나 한 정도?). 그러다보니 필자 이외의 식구들은 남편 또는 아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든 것을 인식시켜줄 뿐, 가사에

관해서는 아무런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한편은 '서울대 가족'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보여 주었다. 식구들이 공연히 미안해하는 것 같아 그 이후로는 읽어보라고 하지도 않는다. 또한 필자도 대충 큰 제목만 훑어보고는 보고 난 신문지 더미에 던져버리고 만 것이 사실이

필요할 때 꺼내보며 서울대인의 가치관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다. 금번 원고청탁을 받고 나서야 유심히 모든 면을 읽어보니,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울대총동창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최근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서 제가 실지까지 점점 약화되고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과 잡지가 많다 보니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禹昌命

(70년 農大卒)

우리경영정책연구소

소장



는 20대, 30대의 젊은이들 외에는 40대 및 50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구가 20%, 10%정도라고 하니 신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필자는 수원에서 농대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대 전체 동문들에 대한 특별한 연대감이 없다. 겨우 1967년경에 서울대 공대(공통종)에서 서울대 전체 체육대회를 한 번 가진 기억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매월 배달되는 동창회보는 우리 동문들에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서울대인으로써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타블로이드

관 회보가 아니라 정장용 한 잡지형태로 바꾸어 파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우리 서울대인들은 국내외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한다. 현재와 같이 우리 나라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숭배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우리 서울대인들이 지도자라는 자긍심만 있다면 나와 내 가족, 내 집단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동창회보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심도가 있도록 특집 또는 연재로 다루주었으면 한다.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닌 실천적으로 철학적, 실리적, 사회적인 어프로치도 좋고,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사례 비교연구도 좋을 것이다. 또한 회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떠한 투고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피드백(feedback)해 줌으로써 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피드백은 서울대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적절한 취사선택 및 조정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대총동창회보가 훌륭하고 바라는 신문이 아니라 쉽게 정리하여 필요할 때 다시 꺼낼 볼 수 있고, 우리 나라 지도자들의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와 인류를 사랑할 줄 아는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대인으로 살아온 내 인생의 소회

최근 10여 년 동안 3명의 대학동창들과의 교류 말고는 내 거처를 알 턱이 없는 처지에 살고 있는 필자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동창회보의 기고 부탁은 뜻밖이다. 선천적으로 얌전한 나서는 타임도 아니지만 주어진 일이라면 가절도 안 하는 내 성격과 정작을 받고 보니 난감하다. 그동안 본 그녀의 글을 읽어보니 회보에 대한 비판과 칭찬은 많은 분들의 해주신 듯 하다. 그에 더해 종언만하는 것보다는 회보를 보는 순간 느꼈던 '서울대인으로 살아온 내 인생'에 관한 소회를 밝히는 게 쓰는 필지도, 읽는 동문들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준비된 전직 대통령이 있었듯이 필자 역시 여덟 살 적부터 준비된 서울대생이었다. 그리고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인생의 중간 결산 순간 대학재조사를 따져본다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인 면에서 이득보다는 손해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다. 세간의 말처럼 필자도 나쁜 서울대 졸업생의 확실한 이점은 서울대 콤플렉스가 없는 것 말고는 별것이 없었다.

서울대생이라서 입사동기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일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기 무섭게 치사하고 아니꼬운 현실에는 적응이 힘들어 박치고 나오기 일쑤였다. 꿈이 큰 만큼 좌절도 많고 실망도 많았으나 학문의 길 말고는 방법에서는 가난아이를 면하기 힘든 것이 서울대 동문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든든한 배경 없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대접이 대한민국에서 어떤가는 작금의 서울대 여고수 비웃만 보아도 확실한 반증이 아닌가.

필자 역시 시골의 한 농사꾼의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여타의 활자종족들 환자처럼 원하던 서울대에 입학하기는 파히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의 과외금지 조치로 몸담을 곳이 없고 용돈도 없는 처지에 전체적인 방 한구석의 가생생활로 시작한 서울생활은 신랄함과 불친

꿈이 큰 만큼 실망 많고

「학문의 길」 말고는

가난뱅이 면하기 힘들어

으로 거처가 바뀌어도 생존조차 버거운 국민의 처지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필자의 처지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 학내에서, 시가지에서 군부독재 태도와 민주화를 부르짖는 데모와 최루탄, 화염병이 내 침침을 짓누르고 있었다.

내가 서울대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서울대는 대한민국 지성인의 요람이자 전당이라 믿었고 또한 지성인은 이 사회를

金銀姬

(85년 人文大卒)

한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책임지는 리더로서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자 생각조치 때문이었다. 또한 지성인의 표상인 직업을 손꼽아만 작가 이상은 없었다. 한마디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국문과에 입학했고 필자의 이 신념은 열살 이전부터 스무살 때까지 무모하지만 감했다. 신념이 내 삶의 기둥처럼 얼마나 빛나게 했는지는 팔로로 묶어두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필자는 작가로서 문명을 얻기는 커녕 신문에 음모조차도 못해본(혹은 안 해 본) 채 두 딸을 가진 엄마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는 과의교사로서 밥을 먹었고 지금은 과거 달동네의 흔적이 남은 곳에서 공인중개사로 살면서도 가슴의

한편에서는 마하트마 간디의 삶을 흠모하고 헨리 데이빗 소로의 실험적 삶을 동경하면서 언젠가는 대자유의 삶을 누리다가 가리라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생을 꿈꾸는 많은 학부생과 학생들에게 삼문조사를 하고 싶다. 예 서울대에 가려 하고, 보내시고 싶습니까? 다음에서 고르세요. (중복응답 가능)

1. 출세하고 싶어서 2. 돈을 벌고 싶어서 3. 명예 때문에 4. 학문의 길을 걷고 싶어서 5. 사회지도층이 되고 싶어서 6. 뜻이 통하는 벗들을 만나려고 7. 차원 높은 삶을 살고파서 8. 서울대 콤플렉스 안 가지려고 9. 학비가 싸고 장학금이 많아져서 10. 기타.

그리고 필자는 아직 초등학교 두 딸들에게도 항상 말한다.

「엄마는 앞으로 돈 많이 벌 재주도 없고 너희에게 돈을 들여 과외를 시키고 싶지는 않다. 너희들 대학을 보내는 것은 엄마의 의무가 아니다. 나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고 나는 고등학교까지 너희를 가르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돈을 벌고 대신 대학 공부하고 싶다면 너희 힘과 실력으로 가고 그 중에서 서울대의 학비가 가장 싸고 친구할 만한 사람도 많으니가 거기 한번 가볼라!」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두 딸은 엄마의 경제력을 아는 모양인지 눈만 뜨면 학교에 놀러 가고, 하교하면 소리쳐서 잡들라고 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밖에서도 집에서 잘 한다. 필자의 어린 시절과는 관이하게 다른 두 딸의 놀이정신이 신기해한다. 그들이 나보다 더는 삶을 살 거라는 소망 어린 확신이 든다.